소송,파산관재,채권회수,기업법무,투자컨설팅
YSM & PARTNERS 법률사무소
yisngmin@gmail.com
(021)525-5959, 0816-1911-245

한국·인도네시아의 길잡이
HANIN POST
한인포스트
www.haninpost.com

우리컨설팅
비자 법인 인허가 수출입 부동산 채용
+62 8111-543-456 hzkim2003 | wooricon2
+62-21-7918-4239 master@woori-consulting.com

2005년 10월 5일 창간 주간 제1051호 광고/구독 문의: 카톡 haninpost 유료 : 35만 루피아/월 4회 e-Paper 2026년 11월 6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불법 도청 의혹’ 정국 강타… 해군 2만 1천 명 자카르타 이동설에 수도권 긴장 고조

- 리스티요 시깃 전 경찰청장·경찰 수뇌부 구속 직후 군 총사령관 명의 전보 문건 유출
- 함정·기동차량 총동원해 4단계 전개 계획… 해군본부·해병대 등 20,980명 비상대기
- 인도네시아군 총사령부 “영토 보전 위한 통상적 대비태세” 진화 나섰으나 파문 확산

【자카르타=한인포스트】 리스티요 시깃 프라보워(Listyo Sigit Prabowo) 전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이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현 대통령을 겨냥한 불법 도청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식 입건·구금된 직후, 인도네시아 해군(TNI AL) 정예 병력 약 2만 1,000명이 자카르타 수도권(DKI Jakarta)에 긴급 배치된다는 군 내부 기밀 문건이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가 치안을 담당하는 최고위 경찰 간부들이 국가원수 도청 혐의로 구속되는 등 초유의 사태 속에서 정예 군 병력의 대규모 수도권 집결 정황까지 드러나자, 인도네시아 정가와 외국인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4단계 걸쳐 함정·육상 기동… 2만 980명 동원 계획 드러나

논란의 발단은 자카르타 수도권 일대의 특별 경비 강화를 골자로 한 인도네시아군(TNI) 내부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시작됐다.

11월 4일자 CNN인도네시아 등 주요언론에 따르면, 해당 병력 동원 계획은 지난 2026년 11월 2일 자로 전격 발령된 아구스 수비얀토(Agus Subiyanto) 인도네시아군 총사령관의 공식 전보 지시(공문번호: STR/96/2026)에 명시돼 있다.

해당 공문은 해군참모총장(Kasal)을 비롯해 해군참모차장, 함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해양수로조사원장, 군 총사령부 작전참모 등 해군 및 군 합동 지휘부 최상위 라인을 수신처로 지정했다. 문서에는 자카르타 관내뿐 아니라 외곽 기지에 주둔한 해군 산하 각급 부대의 단계적 기동 및 비상대기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요약하면 문건에 명시된 총동원 병력은 총 20,980명에 달하며,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 4단계에 걸쳐 치밀하게 전개되도록 설계됐다.

1단계(2,100명): 즉각 투입

자카르타 관할 해병대와 제1함대사령부, 제3해군지역사령부(Kodaeral III), 해상수송사령부(Kolinlamil) 병력 2,100명이 자카르타 군관구사령부(Kodam Jaya)의 작전통제지원(BKO) 체계로 긴급 배속돼 수도권 주요 거점의 경비 강화 임무를 개시했다.

2단계(3,500명): 해상 기동 전개

제2함대사령부, 제5해군지역사령부, 제2해병보병여단(Pasmar 2), 제2해상수송전대 등 외곽 주둔 부대 3,500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11월 3일과 4일 양일간 대형 상륙함인 KRI 마카사르함과 병원선 KRI 드르 수하르소함 등 대형 함정을 이용해 자카르타 인근 항만으로 해상 이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해군부대 pasukan TNI AL.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3단계(2,240명): 육상 긴급 이동

제2함대사령부와 제2해병보병여단 잔여 전력을 비롯해 해군항공사령부, 해군사관학교(AAL), 해군교육훈련사령부(Kodiklatal) 병력 2,240명이 군용 버스와 트럭을 이용해 육로로 자카르타를 향해 이동 배치된다.

4단계(13,140명): 전략적 비상대기

칠랑캅(Cilangkap) 해군본부 소속 4,430명과 자카르타 관할 해병대 4,410명을 주축으로, 함대사령부·해군군사경찰사령부·민토하르조 해군병원·해군지휘참모대학 등 수도권 내 가용한 해군 지원 전력 13,140명이 부대 내 집결 상태에서 최종 기동 명령을 기다리는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한다.

전 단계가 실행될 경우 약 2만 1,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해상·육상 전력이 자카르타 전역을 포위하듯 전개되는 셈이다.

[A5면에서 계속]



청정원
DAESANG

사장님의 고민은 줄이고, 요리의 품격은 올립니다!

NEW ITEM





압도적인 가성비

~~Rp.599.000~~

Rp.480.000

HARGA EKONOMIS

"프리미엄의 완성"
좋은 고추장은 손님들이 먼저 알아 봅니다

KUALITAS PREMIUM, CITARASA LEZAT!

HALAL INDONESIA
ID00410020848741024



안전관리인증 HACCP
ccm 소비자중심
WORLD CLASS PRODUCT OF KOREA 세계일류상품

SCAN FOR MORE INFO

추가 정보 및 주문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INFORMASI LEBIH LANJUT & PEMESANAN:

0821-3000-6262

인니 대통령궁, 프라보워 대통령 불법 도청 의혹에 “내란에 준하는 중대 범죄” 규정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이 리스티요 시깃 프라보워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고위 경찰 간부들이 연루된 불법 도청 의혹과 관련해 “국가 지도자의 신변을 위협하고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내란(Makar)’에 준하는 중대 범죄”라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프라세티오 하디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 장관은 4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및 주요 고위 공직자들을 겨냥한 불법 감청 행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프라세티오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도청과 전자 증거 인멸, 국가원수 소유 정보에 대한 불법 접근 행위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연루 의혹을 받는 리스티요 시깃 전 경찰청장이 현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KSP)으로 중용되었던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대통령궁의 충격과 분노는 더욱 거센 분위기다.

장관은 “국가원수가 다루는 정보는 국정 운영과 국가 안보, 국가 주권과 직결된 고도의 민감성을 띤다”며 “정부는 이번 행위가 국가 지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권을 위태롭게 만든 내란죄 적용 가능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궁에 따르면, 이번 불법 도청의 대상은 프라보워 대통령뿐만 아니라 각 부처 장관, 주요 정당 대표, 언론인, 대중조직(Ormas) 지도부, 기업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프라세티오 장관은 “국가원수와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법적 근거 없이 감행된 행위의 배후 목적이 무엇인지 깊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역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사건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프라보워 대통령은 사법 당국에 엄정한 처리를 지시했다. 프라세티오 장관은 “대통령은 수유디 아리오 세토 신임 경찰청장에게 일체의 정보 은폐 없이 현행 법령에 따라 철저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궁은 이번 도청을 지시한 최종 배후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의 공식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진상이 규명되는 대로 국민에게 명백히 공개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프라세티오 하디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 장관. Menteri Sekretaris Negara (Mensesneg) Prasetyo Hadi (Biro Kesekretariatan Presiden)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사회적 동요를 경계했다. 프라세티오 장관은 “이번 사건은 특정 불법 세력에 의해 자행된 일탈 행위”라고 선을 그으며 “공공 안녕을 위한 경찰 본연의 공공 서비스는 차질 없이 유지될 것이므로 국민들께서는 동요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그린드라당, “대통령 불법 도청은 반역 행위”… 경찰에 배후·자금줄 전면 수사 촉구

- 전 경찰청장 등 고위 간부 3명 입건… “단순 일탈 아닌 내부 스파이 범죄” 규정
- 경찰 수뇌부 결단 지지 속 “보이지 않는 손 끝까지 추적해 정부 안정 지켜야”
- 대통령 경호 및 정보기관 전반에 대한 충성도 재검증 · 인적 쇄신 요구

인도네시아 집권 여당인 그린드라당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을 겨냥한 불법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경찰(Polri)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당국은 이미 경찰 고위 간부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그린드라당은 이번 사건을 국가 안보와 주권을 위협하는 ‘내부 스파이 행위’이자 중대한 반역으로 규정하며 배후 세력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국가경찰 수사본부(Bareskrim Polri)는 프라보워 대통령에 대한 불법 도청 혐의로 전 경찰청장이자 현 대통령 비서실장인 리스트요 시깃 프라보워(LSP), 아흐리에 손타 나수티온(ASN) 경찰 법무국장(경무관), 에코 하디 산토소(EH) 고등경찰교육원 제1급 교육관(경무관) 등 장성급 3명을 정식 입건했다.

이에 대해 수기앗 산토소 그린드라당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내부 규율 위반이나 통상적인 사이버 범죄 수준으로 치부될 수 없다”며, “수사가 현재 입건된 실행자 및 일부 고위 간부 선에서 꼬리 자르기식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경호망을 뚫는 무모한 공작이 개인적 판단이나 독단으로 실행됐다고 보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개인의 일탈로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이 작전을 실질적으로 기획·지시하고 자금을 댄 배후 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드라당은 수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최고 수위의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수기앗 대변인은 “정부의 안정을 내부에서부터 흔들려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을 완전히 발본색원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법치와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전면적 ‘정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당측은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하고 있는 경찰 수뇌부의 결단에는 지지를 표명했다. 수기앗 대변인은 “직급과 지위를 막론하고 법 집행에 나선 수유디 아리오 세토 경찰청장과 수사본부, 감사기강국(Propam)의 단호한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며, 국민들에게도 근거 없는 추측을 지양하고 사법 당국의 엄정한 절차를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을 불법 도청 혐의로 전 경찰청장이자 현 대통령 비서실장인 리스트요 시깃 프라보워(LSP) Foto: Dok. Istimewa

그는 “프라보워 대통령은 국민의 명확한 위임 아래 국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어떠한 디지털 공작이나 협박으로도 국정 궤도를 흔들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경호 라인과 정보기관 전반에 대한 쇄신이 불가피하다”며 “대통령 주변 핵심 인력에 대한 엄격한 충성도 재검증을 실시해 내부의 잠재적 위협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유도요노 전 대통령, '프라보워 대통령 도청 의혹'에 깊은 우려… "인도네시아 정치 통제 불능 수준"

인도네시아 제6대 대통령인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BY)가 최근 불거진 프라보워 수비안토 현 대통령에 대한 불법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국의 정치 상황이 도덕과 윤리를 상실한 채 극도로 과열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도요노 전 대통령은 2026년 11월 4일 자신의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장문의 글을 올리고 최근 인도네시아 정계의 권력 쟁탈 구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으며, 정치가 왜 이토록 난폭해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선악과 도덕적 가치는 안중에도 없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가 정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재임한 유도요노 전 대통령은 과열된 권력 투쟁이 일반 국민의 삶에 미칠 파장을 경고했다. 그는 "정치적 경쟁이 비정상적으로 치달을 경우 사회 전반에 극심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국민이 자기 나라에서 살아가며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 대신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SBY는 전직 경찰청장 리스티요 시깃이 연루된 프라보워 수비안토에 대한 불법 도청 사건에 대응했다. (Tangkapan layar instagram @aniyudhoyono)

이어 그는 프라보워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품격 있는 정치를 바로세워 줄 것을 직접 호소했다. 유도요노 전 대통령은 "조국을 깊이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프라보워 대통령께 품위 있는 정치를 회복해 주실 것을 간청드린다"며 "이는 시대와 역사의 부름이자 국민의 위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프라보워 대통령이 이번 국정 과제를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인도네시아 경찰청 범죄수사국(Bareskrim)이 프라보워 대통령에 대한 불법 도청 혐의로 전·현직 고위 치안 관계자들을 대거 입건한 직후 나왔다.

수사 당국은 전날인 11월 3일, 현 국가정보실장이자 전직 경찰청장인 리스트요 시깃 프라보보를 비롯해 아흐리에 손타 나수티온 치안감, 에코 하디 산토소 치안감 등 경찰 고위 간부 다수를 공식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아셉 사프루딘 경찰 범죄수사국장에 따르면 불법 도청 행위는 2025년부터 2026년 사이에 광범위하게 자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도청 대상에는 프라보워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요 정부 인사,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까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인도네시아 정가에 거센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광물·LNG '제3국 경유 수출' 전면 금지… 최종 목적국 직수출 의무화

바흘릴 장관 "단순 중개로 마진 챙기는 관행 용인 못 해"… 사실상 싱가포르 정조준 싱가포르 측 "글로벌 트레이딩일 뿐, 실물은 직배송" 해명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산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을 최종 목적국으로 직접 수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고강도 지침을 내렸다. 무역 과정에서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 없이 중간 마진과 세수 혜택만 챙기는 중개국을 거치는 관행을 차단하고, 자원 무역 주권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바흘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하류부문화(다운스트림)·에너지전환조정부 장관 겸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6 광물·석탄 컨벤션 및 전시회(Minerba Convex)' 개막식에서 "광물 자원 수출 시 특정 국가를 경유하는 운송 행위를 전면 금지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바흘릴 장관은 트리 위나르노 광물·석탄 총국장에게 구체적인 이행을 주문하며 "중국으로 원자재를 보낸다면 자카르타에서 중국으로 직항 운송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자카르타를 출발해 특정 국가에 들러 도장만 찍고 자국 수출품이라고 주장하는 기형적인 구조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비판 대상이 된 국가명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 나라가 맞다. 그 국가는 자기 실속만 챙기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해 사실상 역내 물류·금융 허브인 싱가포르를 겨냥했음을 시사했다.

이번 조치는 광물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자원 전반에 적용된다. 바흘릴 장관은 석유가스총국과 석유가스상류사업 특별관리감독기관(SKK Migas)에도 한국과 일본 등으로 수출되는 LNG를 타국 경유 없이 직수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세금과 무역수지 이익은 중개국이 가져가고 있다"며 "국가 자원의 무역 주권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역설했다.

앞서 바흘릴 장관은 지난달 29일에도 싱가포르 기반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산 LNG를 제3국으로 전매(트레이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가 싱가포르로 공급한 148카고(약 1,480 MMSCFD)의 LNG 중 상당량이 싱가포르 내수용이 아닌 제3국 재판매용으로 쓰였다는 지적이다. 현재 프라보워 수비안토 행정부는 자국 내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對)싱가포르 가스관 공급량을 하루 3,100만 표준입방피트(MMSCFD) 감축하는 등 자원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싱가포르 에너지통상산업부(METI)는 채널뉴스아시아(CNA)를 통해 "싱가포르는 50개 이상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활동하는 국제 LNG 트레이딩 허브"라며 "트레이더들이 상업적 결정을 내릴 뿐, 실제 LNG 화물은 원산지에서 목적국으로 직배송되며 물리적으로 싱가포르를 경유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배관을 통해 수입되는 천연가스 역시 전량 국내 소비용이며 재판매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Menteri Koordinator Bidang Hilirisasi dan Transisi Energi Bahlil. (Foto: Tangkapan Layar Youtube/Kementerian ESDM).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인도네시아의 자원 민족주의적 행보와 동남아 중개 무역의 중심축인 싱가포르 간의 신경전이 본격화되면서, 한국과 일본 등 주요 수입국의 자원 조달 및 물류 경로에도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국군(TNI) 대규모 병력 자카르타 전개… 총사령관 "단순 3단계 경계태세(Siaga 3)"

- 아구스 총사령관, 재난 및 안보 위협 대응 위한 '통상적 경계태세' 강조
- 육·해군 전력 수도 집결에도 정확한 병력 규모·경계 단계는 '비공개'
- 정부 "비상사태 아냐"… 일각선 "단순 훈련·경비 이상의 배경 있나" 주시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국군(TNI)의 대규모 병력이 수도 자카르타로 전격 전개되면서 현지 외국인 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도청사건으로 수도권 치안과 정세를 둘러싼 각종 억측이 확산되자 군 최고 지휘부가 직접 진화에 나섰으나, 전개된 병력 규모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단순 경비 작전 그 이상이 아니냐'는 의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군(TNI)의 날 행사 Parade Alutsista TNI (Foto: Istimewa) .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 총사령관 "재난 및 복합 위협 대응 위한 군사 대비태세 체계"

5일자 현지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아구스 수비얀토(Agus Subiyanto) 인도네시아 국군총사령관(대장)은 최근 불거진 수도권 병력 집중 배치와 관련해 마침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구스 총사령관은 이번 조치가 "다양한 잠재적 위협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상시 가동되는 TNI의 고유 대비태세 체계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군 내부 규정상 '경계태세(siaga)'의 정의를 언급하며 "국가가 부를 때 병력과 주요무기체계(alutsista)가 지체 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적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통상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군이 주시하는 잠재적 위협의 범주가 군사적 충돌이나 직접적인 치안 불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구스 총사령관은 "우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홍수, 산불, 쓰나미 등 자연재해 역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이라며 "이와 함께 사회적 갈등, 테러리즘, 극단주의 및 국가전복 기도 등 인적 요인에 의한 다변화된 안보 위협 전반을 폭넓게 상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조치가 수도 자카르타의 급박한 비상사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무함마드 나스(Muhammad Nas) 국군정보관리센터장(소장) 역시 병력 이동의 근거로 거론된 '3단계 경계태세(Siaga 3)'에 대해 "군사 대비태세 체계상 지극히 일상적인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 1~3단계 경계태세 언급하면서도… 현 적용 단계는 '함구'

그러나 군 수뇌부의 이 같은 원론적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중과 안보 전문가들의 불안감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자카르타 중심부와 외곽에 전개된 병력의 규모가 통상적인 순찰이나 경계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TNI의 규정에 따르면 경계태세는 총 3단계로 구분된다.

상황이 안정적이며 일상적인 임무를 유지하되 부대 이동에 일정한 제약이 걸리는 '3단계(Siaga 3)', 긴장 징후가 포착되어 병력과 주요 화력 장비 일부가 즉시 투입 대기 상태로 전환되는 '2단계(Siaga 2)', 그리고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전 병력이 출동 대기를 완료하는 '1단계(Siaga 1)'로 나뉜다.

주목할 점은 아구스 총사령관이 이러한 체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도, 수도에 적용된 구체적 단계를 공개하는 대신, 우기철 자연재해 등 복합적 잠재 위협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만을 거듭 강조했다. 정확한 투입 병력 규모나 집결 목적에 대한 상세한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점 또한 의구심을 키우는 대목이다.

◇ 육·해군 전방위 전개… 정부 "정상 치안 유지 중" 강조

이번 전개 작전에는 지상군뿐만 아니라 해군 전력까지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 해군(TNI AL)은 국가의 전략적 안정과 해양·수도권 안보 확보를 위해 자카르타로의 병동 이동이 공식 실행됐다고 확인했다. 다만 해군 측은 이번 이동이 "통상적인 안보 임무 외에도 인근 반텐주 땅그랑(Tangerang) 및 판데글랑(Pandeglang) 일대에서 예정된 대규모 군사 훈련 준비와 연계된 조치"라고 부연했다.

인도네시아 육군(TNI AD) 역시 이번 전개가 자카르타 내 상황 변화에 즉응하기 위한 선제적 대비태세 확립 차원임을 명시했다. 육군은 모든 작전 행동이 헌법과 국방법령에 명시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안정과 우호적인 민생 여건 조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수습도 이어졌다.

유스릴이자 마헨드라(Yusril Ihza Mahendra) 법무인권이민교정조정부 장관은 "현재 자카르타의 전반적인 치안 및 안보 상황은 지극히 평온한 일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이 동향이나 우려할 만한 동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동요를 경계했다. 다만 유스릴 장관은 "병력 전개의 군사 작전상 구체적 배경과 내막을 설명할 공식적인 권한과 책임은 국방부 장관과 국군총사령관에게 있다"며 일정 부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 투명성 결여된 대규모 이동… "위협의 실체 밝혀야" 목소리

인도네시아 군 수뇌부와 정부가 입을 모아 '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군사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군 최고 통수권자원의 사전 징후나 대형 정쟁 이슈, 대규모 시위 예고가 가시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규모 병력이 수도로 집중 배치된 배경이 명쾌히 설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국면은 크게 두 가지 시각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국가 전략 자산과 행정 기능이 집중된 수도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TNI 본연의 상시 위기관리 체계라는 군의 입장과, 막대한 군사력이 도심에 전개되는 상황에서 대중이 그 구체적 사유와 안보 맥락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하고 있다.

결국 사태의 핵심은 단순한 병력 배치의 사실 여부를 넘어섰다. 총사령관이 언급한 '포괄적 위협'이 과연 단순 재난 대비 수준인지, 아니면 수면 아래 잠재된 정치·사회적 격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현 상황이 수도 자카르타에 대규모 군사력을 집중 배치해야 할 만큼 급박한 것인지에 대한 군 당국의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A1면에 이어서]

군 총사령부 "영토 보전 위한 정상적 대비태세"… 도청 수사 연관성은 회피

대규모 병력 이동 계획이 알려지자 야당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경찰 수뇌부 입건에 따른 군·경 간 갈등 비화 가능성' 혹은 '정치적 격변에 대비한 계엄 조치의 전조가 아니냐'는 의혹이 급속히 번졌다.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인도네시아군 총사령부는 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무하마드 나스(Muhammad Nas) 군 공보실장(소장)은 국영 안타라(Antar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군은 국가 전역을 보호하고 인도네시아 공화국 단일국가(NKRI)의 영토 보전을 수호하기 위해 항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현행 법령에 의거한 임무 수행을 위한 병력 배치는 통상적인 조치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통상적 훈련이나 경계 임무라는 해명과 달리, 2만 명이 넘는 해군 병력이 왜 육상인 수도 자카르타로 집중 배치되어야 하는지, 이들의 구체적인 작전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 나스 소장은 실질적으로 자카르타에 진입한 병력 규모나 육·공군 등 타 군종의 추가 동원 여부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특히 이번 병력 배치가 리스티요 시깃 전 청장의 입건에 따른 경찰 내부 동요 차단용인지, 혹은 구속 사태 이후 촉발될 수 있는 대규모 소요 사태에 대한 선제적 무력 시위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변을 거부해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대통령 도청' 리스티요 시깃 전 경찰청장 전격 구금… 메가톤급 후폭풍

한편, 군 병력 배치의 도화선이 된 '대통령 불법 도청 스캔들' 수사는 경찰 최고 지휘부를 정조준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과 리스트요 시깃 프라보워 경찰청장

인도네시아 경찰청 형사국(Bareskrim Polri)은 전날인 3일, 프라보워 대통령과 국가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의 유선 통신망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전 경찰청장이자 직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리스티요 시깃 프라보워를 전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본청 구치소에 수감했다.

아셉 사프루딘(Asep Safrudin) 경찰청 형사국장(치안정감)은 3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리스티요 시깃 전 청장을 비롯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아흐리 손타 나수티온(ASN) 경찰청 법무국장(치안감), 에코 하디 산토소(EH) 고등경찰지휘참모학교 제1수석 치안교관(치안감) 등 현역 치안감 2명을 구속 수감했다고 발표했다.

수사 당국은 이들에게 인도네시아 형법(KUHP) 제258조, 제332조 제1항 및 제2항(직무유기 및 국가안보 침해), 전자정보거래법(UU ITE) 제32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 및 불법 감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경찰청 내부 통신·정보 기술을 총괄했던 슬라멧 울리안디(SU) 치안감 역시 이번 도청 장비 조달 및 감청망 구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국가원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전직 치안총수가 현직 장성들과 함께 경찰 유치장에 갇히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군 당국의 대규모 무력 이동 보도까지 겹치면서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들은 불안감을 멈출 수 없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권력 심장부 뚫렸다”…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 불법 도청 파문에 외신 일제히 집중 조명

- 전직 경찰청장 출신 비서실장 등 치안 총수급 3인 전격 체포
- 국가 법적 감청 시스템(LIMS) 무단 악용… 각계 요인 수십 명 무차별 사찰 의혹
- 로이터·AP·AFP 등 주요 통신사 “단순 비리 넘어 국가 안보 위협 및 내란 수준의 헌정 위기” 타전



인도네시아 대통령궁 istana-kepresidenan-indonesia

인도네시아 권력의 최정점인 대통령궁을 겨냥한 전대미문의 불법 도청 스캔들이 터지며 국제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재계 핵심 인사들의 통신망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전직 경찰청장 출신의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고위 경찰 장성 3명이 전격 체포되자,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이를 인도네시아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심각한 권력 암투이자 사법·집행기관의 헌정 유린 사태로 규정하며 집중 보도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공직 기강 해이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 체계 붕괴, 불법 사찰에 따른 시민적 자유 훼손, 군경 간 권력 충돌 가능성, 나아가 동남아 최대 경제국의 정치적 안정성 문제로까지 비화하며 글로벌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악하고 있다.

■ 영·미권 유력 매체, “권력 핵심부의 균열과 광범위한 불법 사찰망” 정조준

영국 로이터(Reuters) 통신은 2026년 11월 4일 자 보도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이 도청 연루 의혹을 받는 리스티요 시깃 프라보워 대통령비서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수사망에 올린 사실을 상세히 전했다. 로이터는 국가 안보의 핵심 보직을 역임한 최측근 고위 인사가 구금된 사태의 정치적 파장에 주목했다. 특히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이번 사태는 현 프라보워 정부와 전임 조코 위도도(조코위) 정권 인사들 사이의 잔존 세력 갈등, 그리고 치안 권력을 둘러싼 엘리트 간의 심각한 마찰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라며, 취임 초기 국정 장악과 경제적 도전에 직면한 프라보워 정권의 리더십 안정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AP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는 11월 3일 자 기사를 통해 경찰 장성 3명의 구금 사실과 함께 도청 대상의 광범위함을 고발했다. AP는 수사당국을 인용, “범죄 수사에만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법적 감청 관리 시스템(LIMS, Lawful Interception Management System)’에 프라보워 대통령을 포함한 각계 요인 수십 명의 전화번호가 정당한 영장이나 법적 검증 절차 없이 무단 등록됐다”고 폭로했다. 합법적인 국가 사법 도구가 특정 세력의 정치적 사찰 도구로 변질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 아시아·중동 유력지, “내란(Makar)에 준하는 사태… 피해 범위는 전방위적”

인접국인 싱가포르의 유력 매체들도 비중 있게 움직였다. 스트레이츠타임스(The Straits Times)는 대통령궁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도청 시도가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내란(Makar)’에 필적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채널뉴스아시아(CNA)는 구속된 고위 경찰 간부 3명이 불법 감청뿐 아니라 통신보안법 위반, 국가 전자시스템 무단 침입, 공공 전자 데이터 위·변조 및 파기 등 중대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하며 사법 처리 수위에 주목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치안 총수인 전직 경찰청장이 직접 연루되었다는 점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이번 사태가 인도네시아 군부와 경찰 사이의 오랜 알력 다툼을 다시 촉발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걸프뉴스(Gulf News)는 사찰의 잠재적 피해 범위에 초점을 맞췄다. 걸프뉴스는 도청 목록에 행정부 고위 관료는 물론 야당 정치인, 독립 언론인, 주요 시민사회단체(NGO) 대표, 굴지의 대기업 총수 등이 대거 망라돼 있다고 전하며, “정부 내부를 넘어 국가 전체를 감시망에 두려 했던 초유의 스캔들”이라고 평가했다.

호주 국영 ABC 방송은 특히 언론인을 겨냥한 통신 사찰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ABC는 통신에 대한 무단 감시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권력 최정상을 도청하면서까지 이들이 얻으려 했던 ‘배후의 궁극적 동기’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에 의구심을 표했다.

■ 글로벌 통신사·한·일 언론, “동기 규명에 촉각… 민주주의 시험대”

유럽과 중동의 주요 통신사들도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 프랑스 AFP 통신은 11월 4일 기사에서 경찰 당국의 체포 성명을 전하면서도, 유스릴 이하자 마헨드라 법무·인권조율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정부 차원에서 반역이나 군사 쿠데타와 같은 명백한 모반 징후는 아직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는 신중론을 함께 싣는 등 사태의 실체와 동기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튀르키예의 국영 TRT 월드와 아나돌루(Anadolu) 통신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국가원수를 표적으로 삼은 불법 감청 행위는 형법상 최고형인 ‘반역죄’가 적용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인도네시아 사법체계가 마주한 거대한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아시아 주요국 언론 역시 촉각을 곤두세웠다. 일본의 재팬 타임스(The Japan Times)는 “경찰 고위 간부들이 이미 2025년부터 2026년에 걸쳐 유력 정치인과 언론인, 기업인들의 통신망을 체계적으로 들여다본 정황이 드러났다”고 전하며, 사건의 뿌리가 상당히 깊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의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역시 인도네시아 국가경찰청 발표를 인용해 “프라보워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의 통화를 도청한 혐의로 전 경찰청장 출신 대통령비서실장 등 고위 경찰 3명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동남아 맹주의 권력 심장부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사찰 게이트를 신속히 타전했다.

■ 진상 규명 향방과 정국 파장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스캔들은 단순한 도청 시도를 넘어 인도네시아의 국가정보 관리 체계와 민주적 통제 장치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권력을 수호해야 할 치안 사령탑이 역으로 권력의 정점을 겨눈 이번 사태의 배후에 단독 범행을 넘어선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불법 도청이라는 충격적인 권력 스캔들이 국제사회의 시선 속에서 어떤 결말을 맺을지, 또 프라보워 행정부가 이 사상 초유의 헌정 위기를 어떻게 수습하고 권력 내부를 재정비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자카르타로 쏠리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대법원, 기브란 부통령 '고교 학력 인정' 상고심 기자회견 돌연 취소… 판결문 정본 미수령 이유



인도네시아 대법원(MA) - Gedung Mahkamah Agung (MA). (Foto. Dok. MA)

인도네시아 대법원(MA)이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의 고등학교 학력 인정 증명서(suket) 적법성을 둘러싼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예정됐던 공식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했다.

안디 줄리아 차크라왈라 대법원 법무·공보국장은 2일(현지시간) 서면 성명을 통해 당초 이날 오전 11시(서부 인도네시아 표준시)로 예정되었던 상고심 판결(사건 번호 742 K/TUN/2026호) 관련 브리핑 일정을 잠정 취소한다고 밝혔다.

안디 국장은 취소 사유와 관련해 "현재까지 대법원 법무·공보국은 해당 판결의 공식 정본(正本)을 수령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금일 회견에서 언론과 대중에게 온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자회견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브리핑 취소는 대법원이 최근 기브란 부통령의 고교 학력 인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측 상고 청구를 전격 인용한 직후 나온 조치여서 정·관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카르타 행정법원(PTUN)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선고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自判)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면 인용한다"며 상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율리우스 재판장을 비롯해 하리 수기아하르토, 마이클 레날디 제인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인 수브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2019년 8월 6일 교육문화부 초중등교육총국이 발급한 증명서(제9149/D.D1/KS/2019호)의 적법성 여부다. 해당 문서는 기브란 부통령이 해외에서 취득한 학력을 국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공식 인정한 증명서다.

대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전면 인용함에 따라 해당 학력 인정 처분의 효력 및 파장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대법원이 판결문 정본 미송달을 이유로 공식 입장 표명을 미루면서 판결 이유의 구체적 내용과 향후 파장에 대한 정치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조코위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학력 위조 의혹' 명예훼손 재판 증인 출석

- 피고인 로이 수료 상대 공판 열려… 법원에 직접 출석해 증거 조사 임해
- 지지자 환호 속 삼엄한 경비 뚫고 법정 진입… 가자마다대 학위증 원본 공개 여부 주목


고향 솔로로 돌아온 조코위 대통령 부부 2024.10.20

자카르타에 군 병력이 이동한다는 소식속에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학력 위조 의혹 제기와 관련해 열린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전격 출석했다.

2026년 11월 5일 오전(현지 시각), 조코위 전 대통령은 동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에서 열린 로이 수료 피고인의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인 바틱 셔츠와 검은색 전통 모자 '페치'를 착용한 조코위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실(Paspampres)의 삼엄한 경호 속에 오전 8시 33분경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현장에는 그의 딸 카히양 아유로 추정되는 인물도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법원 일대는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지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현 인도네시아 부통령의 부친이기도 한 조코위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재판에 당당히 임할 것을 응원했다. 조코위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지지자들을 향해 간헐적으로 손을 흔들며 법정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법 당국은 인파 밀집에 따른 돌발 상황을 방지하고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 주변에 최대 3선에 달하는 다층적 경비 체계를 가동, 출입 통제를 강화했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 로이 수료가 조코위 전 대통령의 가자마다 대학교(UGM) 임학 학사 학위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공판에서 로이 수료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 및 전자정보거래법(ITE)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전직 국가원수가 본인의 학력 진위 논란과 직결된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나선 만큼, 현지 법조계와 정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조코위 전 대통령이 그간 위조 논란이 제기되었던 가자마다 대학교 학위증 원본을 법정에 직접 제출하거나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혀온 만큼, 이날 공판에서 핵심 증거가 제시될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HONGSAM BALL

BEST SERVED CHILLED

ZERO CAFFEINE

WITH

Vitamin C, Vitamin B1,
Vitamin B6, Vitamin B12,
and Taurine

Shin Tae Yong
Hongsam Ball Ambassador

STEP IN.
COME BACK STRONG

HONGSAM BALL
HONGSAMBALL
Minuman Berperisa Berkarbonat Dengan Ginseng
(Hongsamball Original)
Red Ginseng Extract

: hongsamball.id

인니 부패척결위, '토지청 뇌물 의혹' 누르손 장관 3차 소환 방침… "조사에 장애 없다"

인도네시아 반부패 수사기관인 부패척결위원회(KPK)가 국토공간·국가토지청(ATR/BPN) 내부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누르손 와히드 장관의 3차 소환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앞서 누르손 장관이 두 차례 소환에 모두 불응했으나, KPK는 수사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흐마드 타우픽 후세인 KPK 수사국 직무대행은 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누르손 장관을 다시 소환하는 데 법적·절차적 장애는 없다"며 "현재 수사팀은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적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타우픽 직무대행은 "앞선 두 차례 불참 사유의 정당성 여부도 현재 검토 대상"이라며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향후 취할 법적 조치와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확정해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르손 장관은 당초 지난달 7일 1차 조사에 출석해야 했으나 부처 내 긴급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며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이후 수사팀이 재차 통보한 15일 2차 출석 요구 역시 해외 공무 수행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KPK는 누르손 장관의 진술이 서보고르군 소재 부동산 개발업체 PT 수마레콘 아궁(Summarecon Agung Tbk)의 건축권(HGB) 취득 과정에서 불거진 뇌물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핵심 열쇠라고 보고 있다. 수사팀은 통신 기록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토지 행정 인허가 과정 전반에 걸친 불법 자금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타우픽 직무대행은 "해당 사건은 여러 갈래의 구조적 부패 정황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소수 증인에만 국한해 수사하지 않는다"며 "사건 전체 구조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단계별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KPK는 지난 9월 자카르타 수도권(자보데타벡) 일대에서 대대적인 현장체포작전(OTT)을 벌여 관련자 8명을 기소했다. 기소 명단에는 소탕 코인 마누룽 보고르군 제1토지청장, 아드리아토 피토조 아디 수마레콘 아궁 대표이사, 람프리 ATR/BPN 토지·공간 통제총국장 외에 전직 지방 관료와 정치인 등 누르손 장관의 측근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조사 결과, 수마레콘 아궁 측은 HGB 제한 해제를 위해 15억 루피아(약 1억 3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KPK는 고위 공무원 및 누르손 장관의 측근들에게 흘러 들어간 별도의 불법 자금 80억 루피아와 특정 피의자 계좌로 입금된 100억 루피아의 현금 흐름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Menteri ATR/Kepala BPN Nusron Wahid. (Foto: Dok. Kementerian ATR/BPN)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직 장관이 반부패 기관의 거듭된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KPK가 강제 구인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정부, '디지털 거래세' 추진에 여론 술렁… QRIS 과세 여부는 "논의 중"

- 아일랑가 경제조정장관 "재무부와 메커니즘 조율 중" 즉답 피해

- 하시모 특사 '11월 9일 시행' 발언 이후 소비 위축 및 '현금 복귀' 우려 확산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핀테크를 아우르는 '디지털세(Digital Taxation)' 도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일상 결제 수단인 표준 퀵 리스폰스 코드(QRIS)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를 두고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

아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주재 각료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아일랑가 장관은 "현재 정부는 재무부(Kemenkeu)와 함께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향후 재무부와 세부 사안을 면밀히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QRIS 결제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아일랑가 장관은 "결제 시스템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확답을 피했다. 또한 이번 과세 조치가 중산층의 소비 여력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언급을 아꼈다. 현재 정부 차원의 명확한 과세 기준과 세부 징수 메커니즘은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논란은 앞서 하시모 수조노 조요하디쿠수모(Hashim Sujono Djojohadikusumo) 기후·에너지 특사의 발언에서 촉발됐다. 하시모 특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2026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전국지도자회의' 개회식에서 "오는 11월 9일부터 디지털세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깜짝 발표했다.

당시 하시모 특사는 국영·민간은행은 물론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고투(GoTo) 등 주요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플랫폼이 미납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체계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행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계좌 이체 및 일상적인 소액 QRIS 결제까지 과세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SNS) 등 온라인상에서는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다시 현금 결제로 회귀하자는 여론까지 번지는 등,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명확한 징수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중소상공인과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소비 시장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교한 정책 조율과 명확한 해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프라보워 대통령 '불법 도청' 의혹 피의자 입건… 전직 전속부관 아흐리에 손타 나수티온 치안감은 누구인가

[자카르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대한 불법 도청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국가원수의 지근거리를 지켰던 전직 대통령 전속부관이 핵심 피의자로 입건돼 인도네시아 정관계와 치안 당국에 거센 충격을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찰청 범죄수사국(Bareskrim)은 지난 3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흐리에 손타 나수티온(Ahrie Sonta Nasution) 경찰청 법무국장(치안감)을 불법 도청, 정보통신망 불법 접속 및 전자기록 손괴 혐의의 피의자로 공식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는 아흐리에 치안감 외에도 전 경찰청장이자 현 대통령 비서실장인 리스티오 시깃 프라보워 치안총감, 에코 하디 산토소 치안감 등 경찰 최고 수뇌부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과학수사(Scientific Crime Investigation) 기법을 통해 프라보워 대통령의 개인 통신 회선을 포함한 국가 최고 기밀망에 대한 불법 감청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장·수사통' 엘리트 코스… 조코 찬드라 검거로 두각

1981년 서자바주 반둥에서 태어난 아흐리에 치안감은 2002년 경찰대학교(Akpol)를 졸업한 뒤 일선 수사 및 작전 부서를 두루 거친 정통 '수사통'이다. 공무 수행 중 경찰학 박사 학위를 취득할 만큼 학문적 역량도 겸비했다.

그는 파푸아 지역의 치안 안정을 위한 '네망카위(Nemangkawi) 특수작전'에 투입돼 두각을 나타냈으며, 자카르타 지방경찰청 마약수사국 재직 당시에는 대형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을 잇달아 소탕하며 수사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2020년 7월, 수조 루피아 규모의 국고 손실을 입히고 해외로 장기 도피 중이던 '발리은행 사건'의 주범 조코 찬드라(Djoko Tjandra)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성공적으로 검거·송환하는 특수공조 작전에 참여하면서 대외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후 수도권 요충지인 탄중 프리옥 항만경찰서장직을 역임하며 지휘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 경찰청장 '복심'에서 대통령 전속부관, 그리고 초고속 승진

아흐리에 치안감의 관운은 2021년 2월 리스티오 시깃 프라보워 당시 신임 경찰청장의 개인비서(Sekpri)로 발탁되면서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2021년 의회 인사청문회 당시 총경 신분으로 고위 장성들 사이에서 청장을 밀착 보좌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은 그는, 경찰청장과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권력 핵심부와의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이어 2024년 10월 프라보워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전속부관으로 전격 발탁, 대통령궁에 입성했다. 국가원수의 일정과 의전을 지근거리에서 총괄 보좌한 그는 2025년 10월, 2002년 경찰대 동기 중 가장 먼저 장성급인 경무관(별 하나)으로 승진했다.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다. 불과 1년 만인 2026년 10월 2일, 그는 치안감(별 둘)으로 초고속 승진하며 경찰청 본청의 법률 지원과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경찰청 법무국장(Kadivkum) 요직에 기용됐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치안감에 오른 입지전적 행보였다.


아흐리에 손타 나수티온(Ahrie Sonta Nasution) 경찰청 법무국장(치안감) Irjen Ahrie Sonta, Kadivkum Polri /sisdivkum polri

■ 최고 권력의 최측근에서 국가원수 도청 혐의 피의자로 추락

그러나 법무국장에 부임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그는 자신이 보좌했던 국가원수를 상대로 불법 도청을 감행한 혐의를 받는 중대 범죄 피의자로 전락했다.

치안 당국과 현지 정가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동선과 통신 보안을 가장 철저히 보호해야 할 전직 전속부관이 오히려 전임 보스인 전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대통령의 사적 통신망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셉 사프루딘 범죄수사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 기록 분석을 바탕으로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다.

경찰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승승장구하던 아흐리에 손타 나수티온 치안감이 인도네시아 현대 정치사상 초유의 '대통령 불법 도청 게이트'의 중심인물로 지목되면서, 이번 사건의 배후와 목적을 둘러싼 정국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대통령 불법 도청' 파문 일파만파… 전 마약수사국장 에코 하디 산토소 치안감 피의자 입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겨냥한 불법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마약 수사 분야의 베테랑 고위 경찰 간부가 피의자로 공식 입건되면서 인도네시아 정·관계가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

인도네시아 경찰청 범죄수사국(Bareskrim)은 지난 3일(현지시간) 저녁 자카르타 경찰청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코 하디 산토소(Eko Hadi Santoso) 경찰 치안감(Irjen)을 불법 감청 및 전산망 무단 침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브리핑을 주재한 아셉 사프루딘 범죄수사국장(치안정감)은 앞서 이니셜 'EH'로 언급된 핵심 피의자가 에코 치안감임을 공식 확인했다. 이번 사건에는 에코 치안감 외에도 전 경찰청장인 리스티오 시깃 프라보워(Listyo Sigit Prabowo) 치안총감(이니셜 LSP)과 아흐리에 손타 나수티온(Ahrie Sonta Nasution) 경찰청 법무본부장(치안감·이니셜 ASN) 등 최고위직 경찰 간부들이 대거 피의자로 함께 입건되어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부터 2026년에 걸쳐 프라보워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해 다수의 통신망을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도청 대상에는 국가원수뿐 아니라 정부 고위 관료, 정계 주요 인사, 시민단체 대표, 언론인, 비정부기구(NGO) 활동가, 재계 인사 등 사회 각계의 유력 인사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에코 하디 산토소(Eko Hadi Santoso) 경찰 치안감(Irjen) Inspektur Jenderal Eko Hadi Santoso (dok: istimewa)

범죄수사국은 경찰 내부의 합법적 감청 관리 시스템인 'LIMS(Lawful Interception Management System)'가 불법적으로 악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LIMS는 범죄 수사 목적상 법원 영장 등 엄격한 법적 절차와 내부 승인을 거쳐야만 가동되는 감청 통제 체계다. 그러나 수사팀 조사 결과, 정당한 수사 요청이나 검증 절차 없이 대상 전화번호들이 무단으로 입력되어 감청이 실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셉 국장은 "해당 도청 행위는 정상적인 법 집행 절차와 전혀 무관하게 은밀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들이 도청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LIMS 내 감청 기록과 관련 전자 데이터를 조직적으로 삭제했는지 여부(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관련 전자기기 일체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며, 주요 참고인 및 기술 전문가들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입건된 에코 하디 산토소 치안감은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통이자 마약 수사 전문가로 꼽혀온 인물이다. 1999년 경찰사관학교(Akpol)를 졸업한 뒤 자카르타 탄중 프리옥 항만경찰서장, 경찰청 정보통신(TIK)본부 주요 보직, 범죄수사국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그는 범죄수사국 마약범죄수사국장(Dirtipidnarkoba) 재임 시절, 국제 마약 밀매 조직 소탕 및 아체(Aceh) 지역의 대규모 대마초 재배지 적발 등 굵직한 사건들을 지휘하며 치적을 쌓았다. 이번 사건에 연루되기 직전에는 인도네시아 경찰 교육훈련원(Lemdiklat) 산하 경찰고위지휘참모대학(Sespim) 1급 수석교관을 지냈다.

마약 범죄 소탕의 핵심 주역에서 현직 대통령 불법 도청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전락한 에코 치안감의 신병 처리를 둘러싸고, 향후 군·경 내부의 권력 지형과 정국 향방에 미칠 파장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프라보워 印尼 대통령, '불법 감청 피의' 비서실장 전격 해임… 직무대행에 아리요 윈두토모 중장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불법 감청' 혐의로 입건된 리스티요 시깃 프라보워 대통령 비서실장(KSP)을 전격 해임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은 4일(현지시간) 프라세티오 하디 국가사무처 장관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프라보워 대통령이 이날 오전 리스티요 비서실장의 면직을 승인하는 대통령령(Keppres)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리스티요 실장이 현직 대통령의 휴대전화 불법 감청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프라세티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 중 한 명이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오늘 오전 대통령 각하께서 리스티요 시깃 프라보워의 비서실장 직 면직 결정을 내리셨다"고 전했다.

이어 프라세티오 장관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리요 윈두토모 육군 중장을 비서실장 직무대행(Plt)으로 긴급 지명했다고 덧붙였다.

비서실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아리요 중장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측근 군맥(軍脈)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24년 11월 대통령 비서처장(Kasetpres)으로 발탁됐으며, 프라보워 대통령이 과거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에도 국방부 사무총장실 총무국장, 인사과장, 국방대학교 감사단장 등을 역임하며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바 있다.

이번 인사 조치의 발단이 된 '불법 감청 게이트'는 전날 인도네시아 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로 수면 위에 올랐다. 경찰청 형사국장 아셉 사프루딘 치안정감은 3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감청 혐의로 리스티요 비서실장(치안총감)을 비롯해 아리에 손타 나수티온 경찰청 법무국장(치안감), 에코 하디 산토소 장성 등 군·경 고위 인사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부터 2026년 사이 정상적인 법 집행 목적과 무관하게 프라보워 대통령의 전화번호 등을 대상으로 불법 도·감청을 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의자들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10월 합법적 감청 관리 시스템(LIMS)에 접속해 관련 활동 흔적을 인멸하려 시도한 정황까지 포착돼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현직 국가원수를 겨냥한 최측근 인사의 불법 감청 정황이 드러나면서, 인도네시아 정가는 물론 군·경 권력기관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사정 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왼쪽)과 전 경찰청장 리스티요 시깃 프라보워 대장(오른쪽)을 대통령 비서실장(Kepala Staf Kepresidenan) (Foto: Istimewa)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프라보워 印尼 대통령, 비서실장 직무대행에 아리요 빈두토모 중장 지명



아리요 빈두토모 중장을 대통령궁 비서실장 직무대행 Presiden Prabowo Subianto menunjuk Letjen TNI Ariyo Windutomo sebagai Plt Kepala Staf Kepresidenan, menggantikan Listyo Sigit Prabowo yang kini tersangka. (Foto: Istimewa)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리스티요 시깃 프라보워 대통령 비서실장(KSP)을 전격 해임하고, 후임 직무대행으로 아리요 빈두토모 육군 중장을 지명했다.

프라세티오 하디 국가사무처 장관은 2026년 11월 4일 대통령궁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리스티요 시깃 실장의 해임령에 서명했다"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리요 빈두토모 중장을 비서실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임 직무대행으로 발탁된 아리요 중장은 1974년생으로 1996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보병 출신 고위 장성이다. 공군지휘참모대학을 거쳐 국방대학교에서 국방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야전 지휘뿐만 아니라 국방 행정 및 조직 관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왔다.

그는 제17/첸드라와시 지역군사령부 등을 거쳐 국방부 인사과장, 사무국 총무국장 등 핵심 행정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국방부 근무 시절 행정 및 거버넌스 역량을 인정받아 준장으로 진급하며 장성 반열에 올랐다.

프라보워 행정부 출범 초기인 2024년 11월 대통령 비서실장(Kasetpres)으로 발탁된 아리요 중장은 국가 의전과 행정 지원을 총괄하며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올해 중장으로 진급한 그는 이번 직무대행 지명으로 대통령 비서실(KSP)의 안정적인 업무 연속성을 이끌 중책을 맡게 됐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coway
TALK
한인기업 특별 상담
0811-9294-114

인도네시아 야당 PDIP “대통령 불법 도청은 민주주의 위협”… 경찰 쇄신 및 수사 확대 촉구

하스토 사무총장 성명 “인권·법치주의 훼손한 중대 사안”
시민사회·정계 대상 불법 사찰 의혹 전면 규명 요구…내부 폭로자엔 “도덕적 힘” 경의 표해

인도네시아 제1야당인 투쟁민주당(PDI Perjuangan, PDIP)이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을 겨냥한 경찰 고위 간부들의 불법 도청 의혹과 관련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면적인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3일(현지시간) 하스토 크리스티얀토(Hasto Kristiyanto) PDIP 사무총장은 공식 서면 성명을 통해 “전자 데이터 삭제 및 무권한 시스템 접근을 동반한 이번 불법 도청 사건은 단순한 공권력 남용을 넘어 국가의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하스토 사무총장은 “국가 권력과 사법 집행 기관이 실정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남용될 때 발생하는 민주적 권리의 침해는 국가 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번 사태가 공권력의 탈법 행태를 바로잡고 사법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청,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돼선 안 돼”…인권 침해 우려 제기

하스토 사무총장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위법으로 축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감청은 법적 절차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한 상태에서만 제한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적 목적을 위해 동원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권력 행사는 법적 근거와 통제 아래 놓여 있어야 한다”며 “사법 당국은 국민의 통신 및 정보 접근에 관한 모든 조치가 적법성과 인권 원칙에 부합하도록 엄격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떠한 권력자나 공직자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시민사회·언론인 향한 ‘사법 탄압’ 유사 사례 수사 확대 촉구

나아가 PDIP 측은 경찰의 이번 수사가 개별 사건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과거 비판 세력을 겨냥했던 공권력 악용 의혹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스토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시민사회, 비판적 언론인, 정계 인사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공권력이 악용되었을 가능성을 철저히 규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와 감시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 기관이 권력 비판 세력을 불법적으로 감시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내부 폭로자 치하 및 경찰 조직의 전면적 쇄신 요구

한편, 하스토 사무총장은 조직 내부의 비위를 용기 있게 폭로한 경찰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불법 도청 사실을 양심에 따라 증언한 경찰 내부 인력들은 암흑 속에서도 살아있는 ‘도덕적 힘’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러한 내부 고발이 경찰 조직의 전면적 개혁과 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구호가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 실천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이 특정 정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본연의 국가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하스토 크리스티얀토(Hasto Kristiyanto) PDIP 사무총장 Sekjen PDIP Hasto Kristiyanto (Foto: Tangkapan Layar Instagram @pdiperjuangan)

인도네시아 경찰청 장성급 인사 대거 신병 확보 파문… 4성 장군 조사 후 석방설까지

- 기동타격대(Brimob) 사령부로 고위 간부들 이송 보도… 감찰국 내사 착수 관측
- 수유디 신임 경찰청장 취임 한 달 만에 대대적 내부 정규 작업 본격화 분석
- 경찰청 본청 “추후 평가 과정 확인할 것” … 긍정도 부정도 안 해 의혹 증폭

인도네시아 공화국 경찰청(Polri) 내부가 전례 없는 대규모 감찰 및 신병 확보 사태로 소용돌이치고 있다. 영관급 장교를 비롯해 장성급 인사 3명, 심지어 전직 경찰 고위직 출신 4성 장군까지 연루되어 경찰청 직업안전감찰국(Divisi Propam)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군·경 안팎에 상당한 파문이 일고 있다.

현지 언론 및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징후는 지난 2일 오후부터 밤사이 자카르타 경찰청 본청에 정예 특수부대인 기동타격대(Brimob) 대원들이 전격 진입하면서 감지되기 시작했다. 통상적인 경계 수준을 넘어선 병력 이동에 언론과 내외의 이목이 쏠렸고, 직후 치안정감(2성 장군)을 포함한 다수의 고위급 간부들의 신병이 확보되었다는 소식이 급속도로 확산했다.

이들은 자카르타 인근 서부자바주 데폭(Depok) 끌라파 두아(Kelapa Dua)에 위치한 기동타격대사령부(Mako Brimob)로 이송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정부 주요 민간 고위직을 맡고 있는 ‘이니셜 L’ 4성 장군 역시 소환 조사를 거친 뒤 풀려났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전해지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현지 관측통들은 이번 사태가 ‘바양카라 군단(인도네시아 경찰의 별칭)’의 지휘권 교체기 내부 역학 구도와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유디 아리오 세토(Suyudi Ario Seto) 경찰청장이 취임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수유디 청장은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체제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영전한 리스티오 시깃 쁘라보워 전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취임 일성으로 조직 기강 쇄신과 연속성 점검을 위한 ‘전면적 내부 통합’을 공언한 바 있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대통령궁 주변 국가 고위급 인사들을 겨냥한 불법 도청 의혹 등이 이번 감찰의 도화선이 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혐의나 대상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 등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경찰청 본청도 3일 공식 입장을 내놓았으나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조니 에디존 이시르 경찰청 대변인(치안정감)은 이날 본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고위 간부들의 체포 및 조사설에 대해 즉각적인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조니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언론인 여러분이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적절한 설명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위 장성들의 신병 확보 여부를 재차 묻는 질의에는 "향후 내부 평가 과정을 면밀히 확인해 보겠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경찰 수뇌부가 침묵 속에 사실상 상황 정리에 돌입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조직 내 핵심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이번 사태가 향후 인도네시아 권력 기관 재편과 공직 기강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대(對)싱가포르 가스 수출 감축… 웡 총리 "계약 이행 촉구·원전 도입 검토"

인도네시아가 자국 내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싱가포르행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공급을 전격 감축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는 계약 준수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원자력 에너지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도네시아 상류 석유·가스 규제기관(SKK Migas)은 지난 24일(현지시간)부터 싱가포르로 향하는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수출량을 공식 감축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코 시스완토 SKK Migas 청장은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 내 발전소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에너지 수요를 우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투나(15 BBTUD)와 수마트라(16 BBTUD) 두 거점에서 총 31 BBTUD 규모의 공급량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25일 인민행동당(PAP) 회의 연설을 통해 즉각 입장을 표명했다. 채널뉴스아시아(CNA)에 따르면 웡 총리는 "이번 감축량은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로부터 도입하는 가스 수요의 2% 미만 수준"이라고 밝히며 단기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웡 총리는 상업적 계약 준수의 중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그는 "모든 당사자가 합의된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한다"며 "싱가포르 가스 수입업체들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자사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그간 특정 국가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 다변화를 추진해 왔다. 2025년 기준 싱가포르의 천연가스 수입 비중은 파이프라인 운송 가스(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산)가 43%,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가 57%를 차지하고 있다. 웡 총리는 "인도네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 감축 위험에 대비해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투자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온 덕분에 공급망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 기저 발전원 확보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웡 총리는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더 청정한 전력원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원자력의 잠재력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전 검토 과정에서 '안전'이 최우선 고려 사항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어렵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택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웡 총리는 "위험과 절충점(trade-offs)을 면밀히 평가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거쳐 국가의 에너지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라보워 대통령과 싱가포르 총리 로런스 웡 (Foto: Dok. BPMI Setpres)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자국 우선주의' 앞세워 대(對)싱가포르 가스 수출 31 BBTUD 전격 감축

- 프라보워 정부 "국가 생존과 국내 공급 우선" … 인접국 수출 재검토 현실화

- 바탐 · 수마트라 발전소로 물량 전환… 싱가포르 EMA "영향은 2% 미만으로 제한적"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내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싱가포르행 천연가스 수출 물량을 전격 감축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에너지 자립과 국내 수요 우선'을 선언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행정부의 기조가 실제 정책 집행으로 이어진 결과다.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상류사업특별관리감독기관(SKK Migas)은 지난 2026년 10월 24일부터 싱가포르로 향하는 천연가스 공급량을 하루 총 31 BBTUD(일일 10억 영국열량단위) 감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확보된 물량은 바탐, 빈탄 및 수마트라 지역 발전소로 전환 배치돼 국내 전력 공급 안정화에 투입된다.

◇ 정부 고위급의 잇단 경고… "존중 없는 국가와 계약 연장 없다"

이번 감축 조치는 사전에 치밀하게 예고된 수순이었다. 앞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맞서 국가 차원의 '생존(survival)'을 강조하며 인접국으로의 에너지 수출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이어 10월 21일 각료회의 직후, 바흘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겸 다운스트림·에너지전환 조정장관은 인접국과의 가스 수출 계약 미연장 가능성을 강도 높게 언급했다. 바흘릴 장관은 "국내 생존과 수요 충족이 최우선이며, 천연가스는 국가 다운스트림 정책의 핵심인 석유화학 산업의 필수 원료"라고 못 박았다.

특히 그는 외교적 상호주의를 거론하며 "인도네시아를 존중하지 않거나 필요할 때만 일방적으로 손을 내미는 비협조적 국가와는 계약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최후통첩성 발언을 남기며 공급 축소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 나투나·수마트라 파이프라인서 31 BBTUD 국내 전환

정치권의 신호에 이어 행정 조치는 신속하게 이행됐다. 조코 시스완토 SKK Migas 청장은 10월 23일 '2026 수브로토 에너지상' 시상식 현장에서 대(對)싱가포르 가스 공급 축소 계획을 공식화했다.

세부적으로는 나투나 지역의 WNTS-펨핑섬-바탐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되던 싱가포르행 물량 중 15 MMSCFD(일일 100만 표준입방피트)를 PLN 바탐 발전소로 돌렸다. 또한, 트란스가신도(TGI)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마트라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가스 중 16 MMSCFD를 감축해 총 31 BBTUD 규모를 국내 전력망으로 재배정했다. SKK Migas 측은 이번 결정이 국내 수요 우선 공급을 명시한 '석유 및 천연가스법(2001년 제22호 제8조 제1항)'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싱가포르 "수요 2% 미만… 공급망 다변화로 영향 미미"

주요 에너지 공급국의 갑작스러운 감축에도 싱가포르 측은 즉각적인 타격은 없다는 입장이다.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은 10월 2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로 인한 공급 감축량은 싱가포르 발전 부문 일일 가스 수요의 2% 미만에 불과하며, 전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나투나해 포렐 및 트루북 석유·가스 프로젝트 - Proyek Migas Forel dan Terubuk di Laut Natuna (Foto: Dok. Kementerian ESDM)

전력의 약 95%를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싱가포르는 오랜 기간 공급 차질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 대응 체계)을 가동해 왔다.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가스(PNG) 외에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터미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2025년 기준 전체 가스 수입 비중은 PNG 43%, LNG 57%로 이미 LNG가 과반을 넘어섰다.

아울러 싱가포르 발전사들은 비상시를 대비해 의무적으로 디젤 연료를 비축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가스코(GasCo)를 통한 추가 LNG 확보, 바이오메탄 및 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원 발굴을 추진 중이다.

한편 현지 매체와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셈콥 가스(Sembcorp Gas) 등이 인도네시아 서나투나 광구 등과 체결한 기존 가스 구매 계약은 오는 2028년까지 유효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기적 수급 위기로 번지지는 않겠지만, 동남아 역내 자원 민족주의 강화 흐름 속에서 장기 계약 만료를 앞둔 싱가포르의 에너지 다변화 전략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싱가포르, 印尼 가스 공급 감축 둘러싼 '연무 갈등 보복설' 일축… "양국 관계 공고"

- 탄시렝 장관, 파이프라인 보수 및 印尼 내 에너지 수요 요인으로 해석
- 국경 넘은 산불 연무로 긴장 고조된 가운데 에너지 이슈 결부엔 선 그어
- 싱가포르 당국, 연무 유발 의혹 20개 기업 대상 조사 등 법적 대응은 가속화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부가 최근 인도네시아의 대(對)싱가포르 천연가스 공급 감축 조치가 양국 간 '월경성(越境性) 연무(헤이즈·Haze)' 갈등과 연관되어 있다는 일각의 의혹을 공식 부인했다.

탄시렝(Tan See Leng) 싱가포르 제2통상산업부 장관 겸 인력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인민행동당(PAP) 콘퍼런스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도네시아의 가스 공급 감축은 파이프라인 수리 및 유지보수, 그리고 현지의 에너지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기술적·내부적 요인 때문으로 보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탄 장관은 "올해 초에도 유사한 파이프라인 보수 작업으로 공급이 제한된 적이 있다"면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를 비롯한 최고위 정부 차원의 양자 관계는 수십 년간 다져온 신뢰를 바탕으로 매우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급 감축 시점이 '싱가포르 국제 에너지 주간(SIEW)'과 겹치며 의도적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탄 장관은 "그것은 인도네시아 측의 고유한 결정이며 이에 대해 평가할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감축이 단기적으로 싱가포르 내 전기 요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체 에너지 공급망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 산불 연무로 고조된 역내 긴장… 싱가포르, 관련 기업 대상 전방위 조사 착수

싱가포르 정부의 이 같은 진화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기저에 흐르는 연무 갈등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등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및 토지 소각으로 인해 유독성 연무가 국경을 넘어 확산되면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등 인접국의 대기질이 위험 수준까지 악화됐다. 이에 아세안(ASEAN) 차원의 긴급 대응 회의가 소집되는 등 외교적 마찰이 빚어졌다.

앞서 라하유 마하자암 싱가포르 국무통상장관은 "불법 토지 소각으로 인한 극심한 대기오염을 더는 용인할 수 없다"며 인도네시아 당국의 미온적 대응과 일부 관리들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국립환경청(NEA)은 '월경성 연무오염법'을 발동해 부미 안달라스 페르마이, 부미 메카르 히자우 등 인도네시아 소재 7개 기업을 포함해 양국



칼리만탄 산림·토지 화재 연무, '매우 위험' 수준 돌파.- Kabut Asap Karhutla Kalimantan Tembus Level Sangat Berbahaya. (Foto. Sumber: Instagram)

내 총 20개 기업에 토지 소각 중단 및 소화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식 통지서를 발송했다.

로렌스 웡 총리가 연무 사태 유발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싱가포르 법무부는 로펌과 감사인, 역외 조사 기관 등으로 구성된 특별 전문가 패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지분 구조와 공급망 뒤에 숨은 기업들의 연무 유발 책임을 끝까지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싱가포르 법상 연무 오염을 유발한 기업에는 하루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피소 위기에 놓인 주요 팜유 및 펄프 생산업체들은 엄격한 '무소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오염 유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연무 사태를 둘러싼 역내 법적·외교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니 보건장관, 연무 지역 방문 중 '산소호흡기 착용' 사진 논란… "시설 홍보 위한 시연" 해명

부디 구나디 사디킨(Budi Gunadi Sadikin)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이 산림 화재로 극심한 대기오염을 겪고 있는 중부 칼리만탄주 팔랑카라야를 방문하던 중 산소호흡기 튜브를 착용한 사진이 확산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부디 장관은 호흡 곤란 때문이 아니라 주민 대피 시설을 홍보하기 위한 시연 과정이었다고 즉각 해명에 나섰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는 부디 장관이 의자에 앉아 산소통에 연결된 튜브를 코에 착용하고 있는 사진이 빠르게 퍼졌다. 일부 게시물에는 "보건부 장관이 팔랑카라야에 도착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산림 및 토지 화재(karhutla)로 인한 연무를 견디지 못하고 산소를 공급받았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특히 과거 "인간은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그의 발언을 인용하며, 정작 본인은 현지의 유독성 연기를 버텨내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부디 장관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bgsadikin)을 통해 직접 진화에 나섰다. 그는 해당 사진이 팔랑카라야 방문 당시 촬영된 것은 맞지만, 맥락이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부디 장관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 이뤄진 현장 방문은 무하마디야 재난관리센터(MDMC)의 '산소의 집(Rumah Oksigen)'과 주정부의 '이동식 산소 버스' 등 연무 피해 대응 시설의 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문제의 사진은 화재 연무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피 및 치료 시설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시연 장면이라는 설명이다.

부디 장관은 "방문 기간 내내 KN95 마스크를 착용해 호흡 곤란 증세를 전혀 겪지 않았다"며 "사진은 사실이지만 덧붙여진 설명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어 "고성능 공기정화 필터(HEPA)와 산소 공급 장치를 갖춘 '산소의 집'이 현장에 마련돼 있음을 알리고자 직접 시연을 보였던 것"이라며, 호흡기 질환 증상이 나타나는 주민들은 즉시 해당 시설을 방문해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디 장관이 방문한 중부 칼리만탄 팔랑카라야는 계속되는 산림 및 토지 화재로 인해 대기질이 재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에 따르면 10월 24일 팔랑카라야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436.5㎍/㎥까지 치솟아 '매우 위험'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동시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부 장관이 산림 화재로 극심한 대기오염을 겪고 있는 중부 칼리만탄주 팔랑카라야를 방문하던 중 산소호흡기 튜브를 사용. (Sumber Foto: Tangkapan Layar X/goldenjk7_)

간대 수도 자카르타보다 약 30배 높은 수치로, 짙은 주황빛 연무가 도시 전체를 뒤덮었다.

위성 관측 결과 중부 칼리만탄 전역에서 카푸아스, 풀랑 피사우 등을 중심으로 수천 개에 달하는 화재 발화점(핫스팟)이 확인되면서 오염 상태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보건 당국은 급성 호흡기 감염증(ISPA) 발생을 경고하며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PT. FREIGHT CARGO LOGISTICS



▬ 해상운송

- *Neutural Consolidator*
- *Transport Containerized Cargo & Heavy Project Cargo*
- *Custom broker*

▬ 항공운송

- *Worldwide Transportation Service*
- *Project Cargo & Special Cargo (Exhibition, Dangerous Cargo)*
- *Air/ Sea & Sea/ Air Service*

▬ 내륙운송

- *Containerized & Heavy Project Cargo Transportation*

▬ 창고보관 업무

- Wide Warehouse Network

▬ 통관 업무

- Customs Clearance Service
- Processing of Fress Duty List

▬ 컨설팅

- Logistics Consulting Service



PT FREIGHT CARGO LOGISTICS
Gading Bukit Indah Blok A No.5, Kelapa Gading Barat,
Kelapa Gading Jakarta 14240
Telp: +62 21 451 3611, email: import@fcl.co.id / export@fcl.co.id

유스릴 인니 법무조정장관 “언더 인보이스 등 조세 사기, 부패 범죄 범주에 포함해야”

- 프라보워 대통령 면담 후 반부패법 개정 및 부패 정의 확대 공식 제안
- 수출 물량 축소 신고 · 불법 조업 등 ‘국가 경제 손실 행위’ 처벌 강화 예고
- 유엔 반부패협약(UNCAC) 기준 맞춰 자금세탁 · 직권남용 등 포괄적 규율 추진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출입 거래 시 가격이나 물량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언더 인보이스(Under-invoicing·과소 청구)’ 및 조세 사기 관행을 ‘부패 범죄’의 범주에 포함해 강력히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전통적인 뇌물 수수나 공금 횡령을 넘어, 국가의 부를 부당하게 유출하고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불법 상행위까지 반부패법의 칼날을 겨누겠다는 취지다.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법무·인권·이민·교정조정장관(Menko Kumham Imipas)은 지난 2026년 10월 26일(월요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호출을 받아 면담을 가진 직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 범죄 재정의 및 관련 법 개정 구상을 공식 발표했다.

유스릴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부패 범죄 규정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적용되어 온 단순 뇌물 수수, 권한 남용, 또는 좁은 의미의 국가 재정 손실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부패 법안의 포괄적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했다.

■ “광물 수출 축소 신고 등 국가의 부(富) 좀먹는 행위, 더는 간과 못 해”

유스릴 장관이 부패 범죄의 범위 확대를 주장하는 핵심 배경에는 천연자원 유출과 그로 인한 막대한 국부 손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언더 인보이스 관행이 실제 수출 가치나 물량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 수입을 가로채고 국가 경제를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거래 조작이 특정 세력의 부당한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스릴 장관은 “현재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음에도 법적 미비로 인해 부패 범죄로 분류되지 않는 행위들이 산재해 있다”면서 “프라보워 대통령께서도 평소 자주 언급하며 우려를 표하시는 언더 인보이스 관행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광산 기업들의 불법적인 수출 관행을 지목했다. 유스릴 장관은 “일부 업자들이 무분별하게 광물을 채굴한 뒤, 실제로는 2만 톤을 수출해 놓고 당국에는 1만 톤만 수출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식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대규모 밀수이자 조세 사기 행위임에도 현행법상 부패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광물 자원의 언더 인보이스뿐만 아니라 영해 내 불법 조업 등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자원과 부를 고갈시키는 행위들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2001년 부패범죄근절법 개정 추진… 유엔 반부패협약(UNCAC) 기준 부합 목표

이에 따라 유스릴 장관은 반부패 규정이 다룰 수 있는 범죄 행위의 외연을 대폭 확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법리적 견해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현행 ‘2001년 제20호 부패범죄근절법(UU Tipikor)’의 개정을 통해 부패의 법적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포함되어 있다.

유스릴 장관은 현행 인도네시아 부패범죄법과 국제 기준인 유엔 반부패협약(UNCAC) 사이에 부패의 정의를 두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법 개정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는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국가경제위원회(DEN) 위원장이 앞서 바로잡은 바와 같이, 부패 범죄를 특정 국가 손실 요인에만 가두지 않도록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우리의 부패 관련 법률을 시대적 요구와 국제 기준에 맞게 재개정할 필요성이 진정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를 의식한 듯 “법 개정이 부패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완화하려는 목적은 결코 아니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부패의 재정의 논의가 단순히 ‘뇌물 수수(bribery)’ 문제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엔 반부패협약 역시 뇌물죄만을 협소하게 다루고 있지 않으며,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을 비롯해 직위를 이용한 부당 거래 및 직권남용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법무·인권·이민·교정조정장관(Menko Kumham Imipas) Menteri Koordinator Bidang Hukum, Hak Asasi Manusia, Imigrasi, dan Pemasyarakatan (Menko Kumham Imipas) Yusril Ihza Mahendra (Sekretariat Presiden RI)

■ 국가경제위 권고안과 맥락 같이해… “국가 재정 손실 요건 유지하되 입증 명확화”

유스릴 장관은 이번 부패 재정의와 관련한 법안 개편 논의가 앞으로도 심도 있게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향후 국가경제위원회(DEN)와의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착수하기에 앞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구체적인 국정 지침과 지시를 먼저 경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유스릴 장관의 발언은 최근 국가경제위원회(DEN)가 마련한 반부패법 개정 권고안과도 궤를 같이한다. 앞서 국가경제위원회는 지난 2026년 10월 20일 자카르타 메르데카 궁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부패 정의 변경 검토와 관련한 공식 권고안을 전달한 바 있다.

국가경제위원회 측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추진 중인 부패범죄근절법 개정 권고안은 기존 범죄 구성요건에서 ‘국가 재정 손실’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현행 부패범죄근절법 제2조 및 제3조, 그리고 형법(KUHP) 제603조 및 제604조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신 권고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는 법 집행 과정이 더욱 확실하고 객관적이며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의 ‘입증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둘째는 아직 인도네시아 국내법에 수용되지 않은 유엔 반부패협약(UNCAC)의 세부 조항들을 적극적으로 입법화함으로써 부패 근절의 사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기존의 공직자 윤리 차원에 머물렀던 반부패 정책을 ‘국가 경제 안보’ 차원으로 격상시키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프라보워 정부의 새로운 반부패 접근 방식이 향후 입법 과정을 거쳐 고질적인 자원 유출과 조세 포탈을 막고,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더욱 종합적으로 보호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한·미·일, 인도네시아에 '차세대 SMR' 수출 추진… 중·러 견제 나선다

미국 '설계' · 한국 '시공' · 일본 '기자재' 등 강점 결합해 원전 동맹 가동
말레이시아 · 필리핀 등 동남아 시장 전반으로 협력 확대 모색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 3국의 기술력과 자본을 결합한 연합 전선을 본격 가동하는 모양새다.

일본 교도통신은 26일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일 3국 정부의 지원하에 각국 원자력 산업계가 참여하는 SMR 수출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협력은 지난 7월 3국 외교장관이 체결한 3자 협력 프레임워크의 후속 조치다. 전 세계적인 저탄소 에너지 전환 수요에 발맞춰 안전성과 경제성이 뛰어난 SMR의 보급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출 타깃인 인도네시아는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지리적 특성상 대규모 송배전망 구축이 어려워, 분산형 전원 공급이 가능한 SMR 기술의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래 에너지 믹스 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3국은 현지 전력 수요에 맞춘 맞춤형 통합 패키지를 제시할 방침이다.

3국은 각국의 산업적 강점을 살린 효율적인 분업 체계를 구축한다. 미국이 원자로 설계 및 원천 기술 분야를 이끌고, 시공 및 플랜트 건설 경쟁력이 뛰어난 한국이 발전소 건설을 총괄하는 구조다. 일본은 핵심 터빈과 주기기 등 고정밀 발전 설비 제조를 담당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원전 원팀' 공조가 러시아와 중국의 공세를 방어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앞서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Rosatom)과 해상 부유식 원전(PLTN) 2기 건설 협력에 합의하는 등 중·러 기술에 대한 접근을 지속해 왔다. 이에 대응해 한·미·일은 기술 신뢰성과 재망 안정성을 앞세워 수주전에 나설 계획이다.

3국은 인도네시아를 교두보 삼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급증하는 동남아시아 원전 시장 전반으로 SMR 공급망 생태계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원전 개발 로드맵 구체화 작업에 맞춰 타진 절차가 긴밀하게 진행 중"이라며 "한·미·일 3국의 역할 분담이 실현될 경우, 향후 글로벌 SMR 수주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회담서 산림화재 책임 기업 제재 및 언더 인보이싱 근절 논의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지난 10월 27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아르마나타 나시르(Arrmanatha Nasir)는 자카르타를 방문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 비비안 발라크리슈난(Vivian Balakrishnan)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특히 에너지 부문 협력 문제로 인해 양국 관계가 미묘한 긴장감을 보였던 시기에 개최되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양국은 국경을 넘는 환경 문제와 경제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아르마나타 나시르(Arrmanatha Nasir)는 자카르타에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 비비안 발라크리슈난(Vivian Balakrishnan)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2026.10.27

1. 산림 및 토지 화재 해결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 구성 합의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산림 및 토지 화재에 연루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Joint Task Force)'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 태스크포스는 정보 교환, 금융 정보 공유, 국경을 넘는 증거 수집 등 광범위한 협력을 목표로 한다. 싱가포르 측은 화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과 관련된 정보 공유 제안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아르마나타 나시르 장관은 현재 인도네시아 국내 법 집행 기관이 토지 소각 불법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백 명의 개인과 50개 이상의 기업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일부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스크포스 구성 메커니즘이 산림 소각으로 이익을 얻는 당사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양국 간의 조정을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국경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의 피난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산림 및 토지 화재 사건은 종종 국경을 넘는 사업 활동 및 자금 흐름과 연관되어 있어, 이러한 협력은 범죄 수사 및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정부 간의 긴밀한 조정은 불법 행위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싱가포르, 책임 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 준비 완료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공동 태스크포스 구성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며, 연무에 책임이 있는 기업을 단속하기 위해 싱가포르가 보유한 모든 법적 및 규제적 권한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천명했다. 이는 법적 수단뿐만 아니라, 유사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적, 경제적 접근 방식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싱가포르에 등록된 기업도 예외 없이 조치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비비안 장관은 산림 및 토지 화재와 이로 인한 연무 문제를 양국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긴밀한 조정이 억지 효과를 가져오고 예방 노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속 조치는 반드시 적용 가능한 증거와 법적 메커니즘에 기반해야 하며, 현재 조사 중인 모든 기업이 위반을 저질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3. 산림 및 토지 화재 관련 기업 데이터 교환 제안

싱가포르 측은 인도네시아의 산림 및 토지 화재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제안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당사자 간의 연관성을 추적하며 법 집행 절차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경을 넘는 데이터 교환은 당국이 기업 활동, 환경 위반 의혹, 그리고 산림 및 토지 화재 사건과 관련된 자금 흐름 간의 복잡한 관계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접근 방식은 금융 거래 추적을 법 집행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화재 발생 장소뿐만 아니라 해당 불법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이익을 얻는 당사자의 연루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4. 언더 인보이싱 근절 협력, 새로운 의제로 부상

환경 문제 외에도 이번 회담에서는 '언더 인보이싱(under-invoicing)' 관행, 즉 실제 거래 가치보다 낮은 무역 송장 거래 가치를 보고하는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되었다. 언더 인보이싱은 관세 또는 세금 등 특정 의무를 불법적으로 회피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수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무역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경제 범죄이다.

아르마나타 장관은 산림 및 토지 화재 처리 과정에서 구축된 협력 관계가 이러한 국경을 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길을 열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이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 범죄 영역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할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5. 지역사회 보호 및 산림/토지 화재 예방의 공동 중요성

양국 외교장관은 산림 및 토지 화재가 지역 사회의 건강, 환경, 그리고 나아가 국가 간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비비안 장관은 연무 문제 해결에 대한 인도네시아에 대한 싱가포르의 변함없는 지지를 강조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응급 구조대 및 소방관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아르마나타 장관은 인도네시아 국민, 특히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화재와 연무의 영향을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집단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산림 및 토지 화재 처리는 단순한 화재 진압을 넘어, 반복적인 화재 예방, 기업의 책임 강화, 환경 복원, 그리고 지역 사회 건강 보호라는 포괄적인 목표를 포함한다고 역설했다. 양국은 더욱 강력한 조정이 유사한 위반을 방지하고 향후 국경을 넘는 연무의 영향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무역 및 투자 강화를 통한 경제 협력 심화

양국은 무역 및 투자를 포함한 경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비비안 장관은 이번 회담이 지난 7월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임을 언급하며, 당시 양국이 경제, 에너지, 국방, 디지털 협력, 환경 및 인적 자원 개발을 포함한 26개 협약을 체결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이는 양국이 경제적 유대 강화를 통해 상호 번영을 추구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7. 특별 소통 채널 개설 및 수교 60주년 기념

산불·토지 화재와 경제 문제 외에도, 양국 장관은 장관급 및 고위 관계자급에 특별 소통 채널, 즉 핫라인을 마련하여 소통 경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신속한 소통 채널은 잠재적인 분쟁이 공개적인 논란으로 비화되기 전에 건설적이고 투명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양측은 신뢰를 유지하고 각국의 국내 절차와 법적 체계를 존중하기 위해 국민 간 교류가 중요하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아르마나타 장관은 내년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가 수교 60주년을 맞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양국 관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비비안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미래 전망에 대한 싱가포르의 확신과 상호 이익이 되는 양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8. 2027년 싱가포르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 지지

아르마나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2027년 싱가포르의 아세안(ASEAN) 의장국 수임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2027년 싱가포르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아세안이 계속 단결하고 중심성을 유지하며 회복력을 갖추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양국은 아세안의 효과성을 높여 역내 주민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조직이 되도록 하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아르마나타 장관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가 단순한 이웃 국가를 넘어, 안정 유지와 역내 협력 강화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회담을 마무리했다.

이번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회담은 양국 간의 현안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환경 문제와 경제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정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프라보워 인니 대통령, 초등학생들과 '청년 맹세문' 낭독… 티틱 수하르토 동석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제98회 '청년 맹세의 날(Sumpah Pemuda)'을 맞아 미래 세대인 초등학생들과 함께 국가적 단결의 의지를 다졌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밤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prabowo)을 통해 초등학생들과 함께 '청년 맹세문'을 낭독하는 약 1분 분량의 기념 영상을 공개했다.

도서관을 배경으로 촬영된 이 영상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흰색 셔츠와 인도네시아 전통 검은색 모자인 '페치(Peci)'를 착용한 채, "인도네시아 어린이들과 함께 읽기"라고 적힌 붉은색 파일을 들고 낭독을 주도했다. 마주 앉은 학생들은 책, 호랑이, 라플레시아 꽃, 바다거북 등이 그려진 붉은 무늬의 흰색 바탕 바틱(Batik) 교복을 입고 대통령의 선창에 맞춰 맹세문을 힘차게 따라 읽었다. 마이크를 착용한 일부 학생들은 서약의 각 부분을 번갈아 가며 낭독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전 부인이자 고(故)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딸인 티틱 수하르토(Titiek Soeharto) 여사가 동석해 눈길을 끌었다. 티틱 여사는 학생들의 교복과 동일한 무늬의 바틱 의상에 붉은색 스카프를 매치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10월 28일 대통령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prabowo에 게시된 영상에서 여러 초등학생과 함께 청년 맹세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낭독된 '청년 맹세문'은 다양한 지역적·조직적 배경을 가진 청년들을 하나의 국가적 이상으로 결집시킨 인도네시아 민족 운동 역사의 핵심적인 선언이다. 맹세문에는 인도네시아 민족 단결의 근간이 되는 세 가지 주요 서약인 ▲하나의 조국(인도네시아 땅)에 대한 충성 ▲하나의 민족(인도네시아 민족) 선언 ▲단결의 언어인 인도네시아어 존중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번 게시물을 통해 이 세 가지 서약의 내용을 직접 글로 작성해 공유하기도 했다.

영상 말미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이 결의를 다지듯 주먹을 불끈 쥐어 위로 들어 올리자, 자리에 함께한 학생들도 일제히 주먹을 들어 올리며 뜨거운 애국심과 투지를 보여줬다. 이번 행사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국가적 정체성과 통합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종교부, 움라 순례객 대상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경유편 이용 자제 권고

- 제다·메디나행 직항편 우선 이용 촉구… 연간 7만 명 규모 경유 수요 국내선 흡수 추진
- 가루다·라이온 에어 등 국적 항공사에 서비스 개선 및 가격 경쟁력 강화 주문
- 중동 정세 속 사우디 현지는 '안정적'… 프라보워 행정부 경제 자립 기조와 궤를 같이해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는 자국 움라(Umrah 소순례) 순례객들에게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를 경유하는 항공편 이용을 당분간 자제하고 직항편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순례객들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막대한 규모의 종교 관광 수요를 국적 항공사로 유입시켜 국가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

다닐 안자르 시만준탁 인도네시아 종교부 차관은 지난 26일 자카르타 종교부 청사에서 열린 움라 여행 주최자(PPIU) 협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직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정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닐 차관은 27일 발표된 브리핑 인용문을 통해 "하즈 및 움라 주무 부처로서 정부는 순례자들이 경유편 대신 직항편을 선택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며, "제다 또는 메디나로 직항하는 노선이 순례객들의 안전 측면에서 훨씬 안정적인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종교부 추산에 따르면, 매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인접 국가를 경유해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는 인도네시아인 움라 순례객 규모는 약 7만 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같은 잠재 수요가 제3국 항공사로 유출되지 않고 자국 직항 노선으로 흡수될 경우, 국적 항공사의 수익성 개선은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종교부는 PPIU 협회 측에 소속 여행사들이 상품 구성 시 경유편 편성을 지양하고 직항편 위주의 상품을 순례객들에게 제안하도록 유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다닐 차관은 "협회 관계자들을 소집해 업계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면서 "순례객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 그리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분간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경유 노선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직항 노선 활성화를 위해 자국 항공업계의 자발적인 자구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조건적인 직항 이용 강요보다는 국적 항공사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합리적인 운임 형성이 뒷받침되어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종교부는 국영 가루다 인도네시아, 최대 민간 항공사인 라이온 에어, 그리고 공항운영공사(앙카사 푸라) 경영진과의 3자 회동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는 움라 전용 항공 서비스 개선 방안과 더불어, 하즈 및 움라 탑승객을 전담하는 공항 터미널 2의 시설 확충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다닐 차관은 "가루다 인도네시아와 라이온 에어는 서비스 수준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며 "국내 항공사들이 안방 시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해외 항공사들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도록 독려하고 있다. 공항공사를 포함한 최고경영진을 긴급 소집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교부는 항공권 환불 등 여행 업계의 오랜 현안 해결에도 정부가 직접 중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다닐 차관은 "현재 많은 여행사가 항공권 환불 지연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종교부 하즈 및 움라 차관 다흐닐 안자르 시만준탁 Wakil Menteri Haji dan Umrah (Wamenhaj) RI, Dahnil Anzar Simanjuntak (Istimewa)

한편,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관련해 종교부는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의 성지 순례 환경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닐 차관은 "외교부와의 상시 소통 체계를 가동 중이며, 사우디아라비아 내 움라 의례 수행은 현재까지 아무런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원활한 성지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사의를 표했다.

이번 정책적 드라이브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대통령이 역설해 온 '국가 경제 주권 확립' 기조와도 직결된다. 다닐 차관은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 산업 분야에서의 경제적 자립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막대한 규모로 치러지는 움라 및 하즈 분야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며 "직항편 이용 권장은 비행 안전을 담보하는 기본 조치이자, 국가 경제의 주권을 강화하는 전략적 행보"라고 역설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10월 인플레이션 3.23% 기록… 중앙은행 목표 상한선(3.5%) 바짝 추격

- 9월(3.28%) 대비 소폭 둔화됐으나 목표 상한선과 불과 0.27%p 격차
- 쌀·고추 등 식료품과 유류비 중심 물가 압력 심화… 가계 실질 구매력 위축 우려
- 변동성 식품 5.81% 급등, 전국 38개 주 전역서 상승… 북술라웨시주 8.07%로 최고치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의 연간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BI)과 정부가 설정한 물가 관리 목표 범위의 최상단에 근접하며 거시경제 안정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기상 여건 악화와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세에 유류비 및 교통비 인상이 가세하면서 민간 소비 여력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은 2일(현지시간) 공식 통계 브리핑을 통해 2026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YoY) 3.23%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재정 당국이 관리 지표로 설정한 연간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인 1.5~3.5%(목표치 2.5% ± 1%포인트) 내에 간신히 머무는 수준이지만, 상한선인 3.5%와의 격차가 불과 0.27%포인트에 불과해 통화 당국의 정책적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유통 및 서비스 통계 담당 차장 아텡 하르토노 Deputi Bidang Statistik Distribusi dan Jada BPS Ateng Hartono (Foto: Tangkapan Layar Youtube @BPSStatistics)

소비자물가지수(CPI) 112.56 기록… 9월 대비 소폭 둔화됐으나 불안한 안정세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 10월 기준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는 112.56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109.04) 대비 3.52포인트 상승했다. 전월 대비(MoM) 인플레이션율은 0.22%를 나타냈으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 물가상승률을 뜻하는 연초 대비(YTD) 수치는 2.40%에 도달했다.

아텡 하르토노(Ateng Hartono) BPS 유통·서비스 통계 담당 차장은 이날 자카르타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소비자물가지수가 2025년 10월 109.04에서 2026년 10월 112.56으로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3.23%의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번 수치는 지난 9월 기록했던 연간 인플레이션율(3.28%)에 비해 0.05%포인트 낮아진 수준으로, 지표상으로는 상승 탄력이 소폭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체감 물가와 직결된 기초 생필품 가격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가계와 시장의 긴장감은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장바구니 물가 비상… '음식·음료·담배' 품목군 헤드라인 물가 견인

지출 항목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먹거리 물가의 고공행진이 두드러졌다. 통계청이 지목한 10월 인플레이션 기여도 상위 3대 항목 중 '음식·음료·담배' 품목군은 연간 4.82%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3.23%) 중 해당 품목군의 기여도만 1.40%포인트에 달해 전체 물가 상승 압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식문화의 필수 재료인 소형 고추(차베 라윗)를 비롯해 주식인 쌀, 식용유, 신선 어류, 육계, 쇠고기, 기계제 크레텍 담배(SKM) 등이 가격 급등을 견인했다. 필수 식료품의 가격 급등은 가계 지출 중 엥겔지수가 높은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급격히 축소시켜 경기 회복의 핵심 축인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 부문 역시 물가 상승의 핵심 뇌관으로 작용했다. 교통 품목군은 전년 동기 대비 4.87% 상승하며 0.59%포인트의 기여도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 변동성 등에 영향을 받은 휘발유 가격 조정을 비롯해 항공료 인상, 엔진 오일 및 차량 윤활유, 오토바이 및 승용차 가격, 유지보수·정비 공임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어 금 장신구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개인 관리 용품 및 기타 서비스 품목군이 4.52%의 상승률(기여도 0.32%포인트)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물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변동성 식품 5.81% 급등… 근원 물가 기여도 1.64%p로 저변 확대

인플레이션 구성 성격별 분석에서는 농축산물 중심의 가격 변동성이 거시 지표를 크게 흔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 이변, 계절적 공급 여건, 물류 유통망 왜곡에 민감한 '변동성 식품(Volatile Food)' 부문의 인플레이션율은 전년 동기 대비 5.81%로 치솟았다. 이 부문의 기여도는 0.96%포인트로, 소형 고추와 쌀, 육계, 쇠고기, 토마토, 붉은 고추 등 식탁 물가의 기초 원자재 가격이 고르게 오름세를 탔다.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은 2.56%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으나, 전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여도는 1.64%포인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일시적 충격을 넘어 금 장신구, 식용유, 외식 물가(백반류), IT 기기(스마트폰·노트북), 산업용 윤활유 등 경제 전반의 기저 가격이 구조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 정책에 의해 가격이 통제되는 '정부 관리 물가(Administered Prices)' 부문은 휘발유, 항공 운임, 가당연유, 가정용 연료 등의 인상으로 인해 3.24%의 상승률(기여도 0.63%포인트)을 기록했다.

전국 38개 주 전역서 일제히 상승… 북술라웨시주 8.07%로 최고치

이번 물가 상승 압력은 특정 경제권에 국한되지 않고 열도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BPS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38개 주 전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물가가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편차도 극심하게 나타났다. 북술라웨시주는 주요 농산물 공급 차질과 물류비 상승이 맞물리며 전국 최고치인 8.07%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 국가 평균치를 두 배 이상 웃돌았다. 반면 물류 인프라가 집중되고 유통망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 자카르타(DKI Jakarta)는 2.5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제 전문가들은 각 주별로 식료품 자급률, 도서 지역 간 연결 물류 비용, 중앙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 차이가 심화되면서 지역 간 물가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법정 관리 목표 상한선(3.5%)을 돌파하지 않도록 연말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 마련과 유통 마진 점검, 물류 보조금 집행 등 전방위적 가격 안정화 조치를 가동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물가 상방 압력이 지속될 경우 향후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 전환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CGV | 2026년 11월 3일 ~ 9일

영화 그 이상의 감동

CINEMA Kids Club

인도네시아 최초!

지금 가입하고 바로 리워드를 받아보세요!

콤보 구매 시 50% 할인

영화 굿즈 10% 할인

KIDS FIELD TRIP 할동 15,000 루피아 할인

어린이 1인당 Rp30,000 팝콘 무료 제공 & 웰컴 키트 증정!

* 팝콘 버킷 1개
* 도시락 1개
* 무비 패스포트 1개

자세한 정보는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이번 주 상영!

10월 30일



*드라마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은퇴자가 인기 패션 회사의 인턴으로 다시 일하기로 결심한다. 유명 할리우드 영화의 한국판 리메이크 작품.

11월 4일



*액션
*일본이 전쟁과 고질라의 위협에서 회복한 후, 새로운 위협이 등장해 그들의 희망을 순식간에 무너뜨린다.
*4DX 포맷 관람 가능

11월 6일



*애니메이션
*마법 모자를 쓴 고양이는 한 남매가 새로운 도시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주를 맡는다. 이 일주는 자신의 마법 모자를 영원히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마지막 기회다.

CGV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지금 예매하세요!

인도네시아 노동부, '2026년 인턴십 3기' 파트너 참여 독려… 기업·공공기관 접수 10월 29일 마감



마강헙(MagangHub) 프로그램 제2기 1차 킥오프 및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야시엘리 인력부 장관과 테디 인드라 위자야 내각사무처장 (Dok Kemnaker)

인도네시아 노동부(Kemnaker)가 민간기업과 정부 부처, 국영기업(BUMN) 및 투자관리청 다난타라(Danantara)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제3기 2차 국가 인턴십 프로그램(MagangHub·마강협)' 운영 파트너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폭넓은 실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산업계와 정부 기관의 실제 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다.

다르마완샤(Darmawansyah) 노동부 직업훈련생산성총국(Binalavotas) 총국장은 26일 서면 성명을 통해 "인턴십 공고가 더 많은 청년에게 전달되고 각 직무 분야에 적합하게 연계되기 위해서는 민관 각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라며 "각 기관의 수요와 전문 분야에 맞춘 양질의 인턴십 자리가 다수 개설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파트너 등록 마감 29일까지… 30일 공고 게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공식 포털(maganghub.kemnaker.go.id)을 통해 오는 10월 29일까지 운영 파트너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접수된 예비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적격성 검증은 10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검증이 완료된 기관의 인턴십 공고는 10월 30일 포털을 통해 일제히 게시될 예정이다.

마강협은 산업계 현장의 직무 역량과 청년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는 국가 차원의 핵심 고용 지원 플랫폼이다. 참여 기관은 조직에 필요한 맞춤형 실무 포지션을 직접 개설할 수 있으며, 구직자는 실무 환경과 업무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노동부는 포용적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을 위한 기회를 포함하는 등 규정된 운영 지침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 11월 4일까지 지원서 접수… 11월 16일 인턴십 본격 개시

노동부가 발표한 향후 세부 추진 일정에 따르면, 구직자 등록 및 적격성 심사는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되며, 실질적인 인턴십 지원서 접수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운영 파트너사의 자체 채용 전형 및 추천 절차를 거치며, 노동부의 최종 적격 심사를 거쳐 11월 13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선발된 인턴들은 오는 11월 16일부터 각 기관에서 본격적인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원을 준비하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철저한 개인정보 확인을 당부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NIK), 졸업일자 등 인적 사항이 고등교육데이터베이스(PDDikti)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적격성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 전 사전 검증이 필수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양한 산업군과 공공 부문의 참여가 확대될수록 청년 구직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접수 마감 시한 내 각 기관의 신속한 등록을 거듭 요청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woori consulting
우리컨설팅
비자 법인 인허가 수출입 부동산 채용
+62 8111-543-456
hzkim2003 | wooricon2
+62-21-7918-4239
master@woori-consulting.com

고객의 평가가
KPCM의 전문성을 증명합니다

★★★★★



WALLING & ACP



INTERIOR



ROOFING



CONSTRUCTION



FLOORING



WAREHOUSE



EPOXY & CONCRETE POLISHING



PANEL



MECHANICAL & ELECTRICAL

산업단지 개발, 공장 건축, 인테리어

공장 유지. 보수 관리 전문

SAMSUNG CJ HYUNDAI LOTTE Mart
ZINUS LocknLock LG EMSONIC
PT. Strawland ZIMMOAH
PT. PUNGKOOK INDONESIA OME PT. SERIM INDONESIA

KPCM

+62 811-9966-903 (Mr Han)
kpcidhan@gmail.com
kpcm.co.id

인니 국영기업 과반이 '적자 늪'…
다나타라, 1,074개 법인 200개로 줄이는 '메스' 들었다

- 인니 투자청(다나타라), 국영기업 생태계 52% 적자… 연간 직접 손실만 23조 루피아 달해
- 계층형 다중 거래로 인한 비효율 비용도 연 31조 루피아… 부채·소송 등 고질적 병폐 심각
- 2030년까지 법인 수 80% 이상 감축하는 '5개년 로드맵' 가동… 병원·호텔·보험 등 대통합
- 초기 구조조정으로 세멘 인니·텔콤 등 수익성 급증… 올해 순이익 360조 루피아 달성 목표



도니 오스카리아(Dony Oskaria) 다나타라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국영기업 규제청장/ Chief Operating Officer (COO) Danantara Indonesia sekaligus Kepala Badan Pengaturan BUMN Dony Oskaria. (Foto: Istimewa)

인도네시아 국영기업(BUMN) 생태계가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른다. 전체 국영기업의 절반 이상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며 매년 막대한 국부를 유출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면서다. 인도네시아 투자청인 다나타라(Danantara)는 비대해진 조직을 과감히 도려내고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고강도 구조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며 국가 경제의 체질 개선에 나섰다.

■ 국영기업 52%가 적자… 배당금 97%는 단 8개 기업에 의존

지난 2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센트럴 페어몬트 호텔에서 개최된 '2026 다나타라 기술 혁신 투자 포럼(Danantara Technology Innovation Investment Forum 2026)'에서 도니 오스카리아(Dony Oskaria) 다나타라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국영기업 규제청장은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들의 충격적인 재무 실태를 공개했다.

도니 COO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다나타라 산하 국영기업 생태계에 속한 1,074개 기업 중 절반이 넘는 52%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적자 기업이 내는 연간 총손실 규모는 약 15억 달러, 현지 통화로 약 23조 루피아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익 구조의 극단적인 불균형이다. 대다수 기업이 손실을 기록하다 보니, 국고로 귀속되는 전체 국영기업 배당금의 97%가 단 8개의 우량 국영기업으로부터만 창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니 COO는 포럼 기조연설에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1,074개의 방만한 기업을 거느리는 것보다 핵심적인 8개 기업만 집중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전체 기업의 과반이 매년 23조 루피아에 달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손실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도 높은 개혁의 배경을 설명했다.

■ '다중 거래'와 '중복 투자'가 부른 연간 35억 달러의 누수

표면적인 적자 외에도 국영기업 내부의 기형적인 지배구조와 거래 관행은 또 다른 비용 누수를 낳고 있다. 도니 COO는 비대한 조직 구조와 자회사 간의 불필요한 다중 거래(계층형 기업 구조)로 인해 연간 최대 20억 달러(약 31조 루피아) 규모의 잠재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접적인 적자(15억 달러)와 비효율로 인한 손실(20억 달러)을 합치면, 부실 기업을 폐쇄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만으로도 매년 35억 달러를 즉각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로 다수의 국영기업들은 핵심 역량과 무관하게 유사·중복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왔다. 현재 국영기업들이 운영 중인 시설만 해도 호텔 1,200개, 병원 60개, 보험사 16개, 투자회사 5개에 달한다. 이들은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각자의 법인 테두리 안에서 내부 거래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기형적 구조를 고착화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영 석유가스공사인 페르타미나(PT Pertamina)의 과거 하류(downstream) 부문 구조다. 페르타미나는 과거 산하에 파트라 니아가(유통), 킬랑 페르타미나 인터내셔널(정유), 페르타미나 인터내셔널 시핑(해운) 등 3개의 자회사를 두었다.

도니 COO는 "상위 부문인 파트라 니아가의 제품을 자회사인 해운사가 운송하면서, 실제로는 민간 선박을 용선해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방식으로 자회사 스스로가 내부 거래 이익을 챙겼다"고 꼬집었다. 국영 통신사 텔콤 인도네시아(PT Telkom Indonesia) 역시 자회사마다 파편화된 네트워크 상품을 보유하며 비효율을 자초했다.

여기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누적 부채와 계열사 간 얽히고설킨 1,000건 이상의 상호 부채(inter-company liabilities), 그리고 500건이 넘는 법적 분쟁은 국영기업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족쇄다. 특히 텔콤 인도네시아의 경우 단일 기업으로 무려 157건의 소송에 휘말린 바 있어, 법적 리스크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 '1,074개→200개'… 2030년 목표 고강도 구조조정 로드맵 가동

다나타라는 이러한 구조적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될 '5개년 국영기업 전환 로드맵'을 전격 발표했다. 핵심은 철저한 '슬림화'와 '전문화'다.

로드맵에 따르면 다나타라는 현재 1,074개인 법인 수를 2030년까지 약 200개로 대폭 축소한다. 이를 위해 가망이 없는 213개 기업은 즉각 청산 절차를 밟고, 15개 기업은 재무 건전성 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비핵심 사업군에 속한 280개 기업은 매각 등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산업별 통폐합 작업도 구체화됐다. 파편화되어 있던 의료 부문의 60개 병원은 단일 법인 산하로 통합되며, 호텔 부문 역시 120개 주요 호텔을 하나의 전문 관리 기업 밑으로 재편한다. 금융 부문에서는 난립하던 16개 국영 보험사를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보험 등 각 분야에 특화된 3개 대형사로 통폐합하고, 국영 증권사들 역시 합병을 통해 최종 2개 회사만 남길 방침이다.

다나타라의 칼날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지난 18개월 동안 다나타라는 이미 364개 기업을 폐쇄하거나 통폐합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말까지 총 750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가시화되는 개혁 성과… "올해 순익 360조 루피아 달성할 것"

고강도 체질 개선 작업은 벌써부터 극적인 재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 재편과 비용 절감을 단행한 주요 기업들의 수익성이 수직 상승한 것이다.

국영 시멘트 기업인 세멘 인도네시아(Semen Indonesia)는 구조조정 이후 순이익이 무려 427% 폭증했으며, 방만한 자회사 정리에 나선 텔콤 인도네시아 역시 순이익이 233% 급증했다. 페르타미나는 문제로 지적됐던 3개 하류 부문 자회사를 합병한 결과, 불과 6개월 만에 최대 1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인프라 부문인 공항 운영에서도 혁신이 일어났다. 터미널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상업 시설을 강화한 결과, 소매 및 부동산 등 비항공(non-aeronautica) 부문의 매출 비중이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뛰었고, 승객 1인당 평균 지출액(passenger spend) 역시 50% 이상 상승했다.

도니 COO는 "전환 작업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인도네시아 국민의 자산인 국영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개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나타라는 하드웨어적 구조조정에 이어 향후 인적 자원의 질적 향상, 조직 문화 개선, 기술 혁신 및 사업 다각화 등 소프트웨어 개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나아가 재무 구조가 탄탄해진 우량 국영기업들은 2029년에서 2030년 사이 증시 상장(IPO)을 추진해 시장의 평가를 받게 할 예정이다.

한편, 자체적인 투자 재원을 국영기업의 배당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다나타라는 이번 구조조정을 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다. 다나타라는 올해 국영기업 전체 목표 순이익을 360조 루피아로 설정했으며, 이 중 최소 200조 루피아를 배당금으로 확보해 국가 미래 전략 산업에 재투자한다는 복안이다.

도니 COO는 "올해 목표 순이익 360조 루피아 달성을 통해 국영기업이 국가 재정의 부담이 아닌,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엔진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www.zimmoah.com

AIR CONSOLIDATION



Incheon
Los Angeles
Daily
2 times / week
Jakarta

ZIMMOAH

Tel : +(62-21) 2936 5670 (ext 245)
E-mail : AIRcargo@zimmoah.com

LCL CONSOLIDATION

Busan
Shanghai
Los Angeles
Hong Kong
Jakarta & Semarang
New York
Shenzhen
South America
Hochiminh
Japanese Outports

Bonded Warehouse
Biz Model

User
Supplier
Bonded Warehouse

1. Trading Agency
2. Purchasing Agency
3. Consignment Agency

Tel : +(62-21) 2937 5670 (ext 231)
E-mail : LCLcargo@zimmoah.com

PT. RLC Indonesia

Direct : +(62)816 182 0317
E-mail : krchoi@rlc.co.id

ZIMMOAH

HEAD OFFICE
Kirana Commercial Avenue. Jl. Kirana Avenue 2 Blok D2 No. 10-11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Indonesia
Tel : +(62-21) 2937 5670 (Hunting) Fax : +(62-21) 2937 5671
E-mail : zimmoah@zimmoah.com www.zimmoah.com

BRANCH OFFICE

SEMARANG	+62 24 351 7198	semarang@zimmoah.com
AIRPORT	+62 21 5591 1853	aircargo@zimmoah.com
HOCHIMINH	+84 28 3776 0107	cargobuscm@cargobuslogitec.com
HANOI	+84 24 3221 6249	cargobushn@cargobuslogitec.com

IATA · AIRLINES PARTNERS · KOREAN AIR · ASIANA AIRLINES · Garuda Indonesia · CHINA AIRLINES · QANTAS · ETIHAD AIRWAYS PARTNER · Emirates

인니 르바크군 한국계 신발 공장 폐쇄… 직원 1,100명 해고

건물 임대 계약 만료에 따른 운영 중단… 사측, 근로자 보상 절차 원만히 마무리

인도네시아 반텐주 르바크군에 위치한 한국계 신발 제조 공장인 'PT 파크랜드 월드 인도네시아(PWI)'가 공장 건물 임대 계약 만료에 따라 공식적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현지 근로자 약 1,100명이 최종 해고 통보를 받았다.

지난 24일(토) 인도네시아 국영 안따라(Antara) 통신에 따르면, 반텐주 르바크군 노동청(Disnaker)의 룰리 카에룰리얀토 서기는 전날인 23일 금요일부로 PWI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최종 해고 조치가 단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장 폐쇄는 2026년 10월로 만료되는 공장 건물의 임대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사측 경영진에 따르면 해당 공장은 향후 인도네시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운영을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PWI의 인력 감축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해(2025년) 말부터 올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공장이 완전히 가동을 멈추기 전 약 900명의 직원이 먼저 일시 해고(휴직) 조치를 받았으며, 이번에 최종적으로 1,1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해당 공장은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 대규모 고용을 창출해 온 핵심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번 폐쇄 조치는 현지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당장 생계 수단을 잃은 수백 가구가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야 하는 등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다만, 대규모 해고 사태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갈등은 빚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룰리 서기는 "PT PWI 측이 해고된 직원들의 법적 권리와 보상 문제를 아무런 잡음 없이 완벽하게 해결해 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사측의 책임 있는 사후 처리를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현재 르바크군 정부와 노동청은 대규모 실직 사태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군 정부는 지역의 노동력 흡수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신규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노동청은 PWI에서 근무했던 숙련된 근로자들이 노동 수요가 높은 타 신발 산업 등 유관 분야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룰리 서기는 전직 직원들이 보유한 숙련된 업무 경력이 향후 신규 투자 유치 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르바크 지역에 동종 업계의 새로운 기업이 진출할 경우, 이번에 해고된 인력들의 역량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신발 제조 분야의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T PWI 6 di Rangkasbitung (Foto: Istimewa)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지브란 부통령, '아시아 EV의 아버지' 칭추엔 찬 교수와 회동… 인니 전기차 혁신 및 미래 논의

지브란 라카부밍 라카(Gibran Rakabuming Raka) 인도네시아 부통령이 세계적인 전기차(EV) 및 에너지 권위자인 칭추엔 찬(Ching-Chuen Chan) 교수와 만나 인도네시아 전기차 기술의 연구·개발(R&D) 및 혁신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 2026년 10월 28일(수) 자카르타 부통령궁에서 진행된 이번 회동은 스텔라 크리스티(Stella Christie) 고등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의 초청으로 성사되었다. '아시아 EV의 아버지'로 널리 알려진 찬 교수는 현재 홍콩폴리테크닉대학교 전기차 및 스마트에너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글로벌 전기차 기술 발전을 이끈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그는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 마겔랑에서 태어나 5세까지 유아기를 보낸 남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날 회동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전기 오토바이' 개발이었다. 지브란 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 정부 역시 전기 오토바이 부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브란 부통령은 "국가 전기차 산업이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대중의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 정책을 제공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인도네시아가 전기차 산업 발전에 필요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해외 기술의 소비국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기술 생산을 위한 연구 및 혁신 역량 강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혁신 측면에서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배석한 스텔라 크리스티 차관 또한 인적 자원 개발과 고등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스텔라 차관은 급변하는 전기차 산업의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대학의 커리큘럼 개편과 역량 인증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단순히 산업 현장의 노동력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고등교육기관이 자국 내 독자적인 기술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처 차원에서 적극 장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브란 라카부밍 부통령이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자카르타 부통령궁에서 마겔랑 출신의 전기차 전문가 칭추안 찬(Ching-Chuen Chan) 교수를 접견했다.(Sekretariat Wakil Presiden RI)

이에 대해 칭추엔 찬 교수는 인도네시아가 타국의 기술을 구매하는 데 의존하지 말고, 교육과 R&D를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조언했다.

찬 교수는 "최고의 일급(1級)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발해야 하는 것"이라며, "타국에서 사들인 기술은 이급이나 삼급 기술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젊은 세대가 직접 일급 기술을 구축하고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식 교류 확대와 청년 세대의 기술적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중국 간의 긴밀한 협력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YSM

YI SENG MIN & PARTNERS 법률사무소

소송.중재(Litigation.Arbitration)
민사소송.형사소송.파산소송.채무지불의무연기소송.행정소송.
노사분쟁소송.지식재산권소송.중재

기업법무(Corporate)
법률의견서.계약서.담보권설정.정관 개정.청산.철수.자문변호사

관재(Bankruptcy.PKPU)
파산관재.채무지불의무연기관재

투자(Investment)
법률실사.인수.합병.분리.차명투자.지분참여.현지법인설립.
대표사무소개설

부동산(Real Estate)
부동산실사.매매중개.임대차중개

자원 개발(Natural Resource)
광산실사.오일팜농장실사.인수.지분참여

가족법(Family)
상속.부부재산분리.혼인.이혼.입양

지식재산권(IPR)
지식재산권소송. 지식재산권등록

공증 지원(Notarization Support)
공증 지원. 아포스티유(Apostille) 지원

사용언어(Language) : 한글.Bahasa Indonesia.English

Korea Center Building, 6th Floor, Suite 606,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12950
Tel. : (021)525-5959. 527-2422

대표변호사 이 승 민
YI SENG MIN, SH., MH.
Attorney at Law
MP. : 0816-1911-245
yisngmin@gmail.com

프리포트 인도네시아, 금 수출세 10% 부과에 우려 표명… 3분기 판매 급감 속 '이중고'

글로벌 광산 기업 프리포트 맥모란(Freeport-McMoRan Inc., 이하 FCX)의 자회사인 프리포트 인도네시아(PTFI)가 정제 금 제품에 대한 10% 수출세 적용을 두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최근 주력 광산의 금 판매량이 급감한 가운데, 수출세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경영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발표된 2026년 3분기 실적 보고서 및 보도자료에 따르면, FCX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현행 금 수출세 규정이 PTFI가 보유한 특별광업사업허가(IUPK) 조항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PTFI의 IUPK 규정상 정제된 순금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어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행정 절차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된 금 수출세는 지난해 12월 23일 발효된 재무부령(PMK) 제80/2025호에 근거한다. 해당 규정은 가공 수준과 국제 금 가격 구간에 따라 수출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금 가격이 트로이온스당 2,800~3,200달러(1차 구간)일 경우 도레(dore·합금 형태의 금괴) 제품에는 12.5%, 3,200달러 초과(2차 구간) 시에는 15%의 세율이 부과된다. 각인된 금괴나 순금 바 등 정제 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1차 구간 7.5%, 2차 구간 10%의 수출세를 내야 한다.

PTFI가 이 시점에 수출세 문제를 공론화한 배경에는 4분기 금 판매 확대 계획이 자리 잡고 있다. 내수 시장 수요를 충족한 이후 잉여 물량을 해외로 원활히 수출하기 위해서는 세금 및 행정 절차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PTFI의 실적 부진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2026년 3분기(7~9월) PTFI의 금 판매량은 9만 8,000온스로, 전년 동기(33만 2,000온스) 대비 70.48% 급감했다. 같은 기간 금 생산량이 22만 9,000온스에 달했음에도 판매가 크게 줄어든 것은 중부 파푸아 그라스버그 블록 케이브(Grasberg Block Cave) 지하광산의 생산능력 확대 과정에서 가동률이 낮아진 데다, 약 6만 온스의 순금 판매가 4분기로 이연된 탓이다.

구리 부문의 실적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3분기 구리 생산량은 2억 4,900만 파운드로 전년 동기(3억 1,100만 파운드) 대비 19.9% 감소했으며, 판매량은 1억 5,300만 파운드에 그쳐 전년 동기(3억 6,000만 파운드) 대비 57.5%나 줄어들었다.

실적 둔화의 주된 원인은 그라스버그 지하광산의 운영 차질 이후 진행 중인 복구 작업 때문이다. 3분기 제분 시설의 일평균 광석 처리량은 14만 1,000톤으로 전체 설비 용량의 약 67% 수준에 머물렀다. FCX 측은 광산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2027년 중반까지 가동률을 80%로 회복하고, 2027년 말에는 완전 가동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금광은 파푸아 중부 미미카에 위치해 있으며, PT 프리포트 인도네시아가 운영하고 있다. (Foto: istimewa)

한편, 하류 부문인 PTFI의 제련 시설은 지난 8월 말 재가동에 들어갔다. 다만 FCX는 처리 및 정련 시설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당분간 생산량과 실제 판매량 간의 격차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광산 운영 정상화라는 과제 속에 직면한 수출세 논란이 향후 PTFI의 4분기 실적 회복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니 국세청, '계좌 이체·QRIS 디지털세 부과설' 일축… "해외 디지털 거래 한정 과세"

- 11월 9일 시행설에 확산된 '송금 세금 폭탄' 논란 진화
- 공식 입장 발표… "일반 계좌 이체·QRIS 결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아냐"
- '해외 디지털 거래 세금 징수 시스템(SPP-TDLN)' 적용… 국책은행 등 6개사 우선 참여

오는 11월 9일부터 은행 계좌 이체와 간편결제 등 일상적인 금융 거래에 디지털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며 대중의 불안이 커지자, 인도네시아 세무 당국이 공식 입장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국세청(DJP)은 2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최근 제기된 과세 논란을 일축하며, 해당 정책은 일상적인 금융 서비스가 아닌 '해외 디지털 거래 세금 징수 시스템(SPP-TDLN)'에 한정된 조치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번 논란은 하시임 조요하디쿠수모(Hashim Djojohadikusumo)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서 촉발됐다. 하시임 위원장이 11월 9일부터 주요 은행, 핀테크,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세 징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언급하자, 시장에서는 개인 간 계좌 이체, 단순 송금, 표준 퀵 리스폰스 코드(QRIS) 결제 등 모든 거래에 부가가치세(PPN)가 추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급속도로 퍼졌다.

이에 대해 잉게 디아나 리스마완티(Inge Diana Rismawanti) 국세청 홍보·서비스 국장은 "SPP-TDLN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디지털 거래'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징수하기 위한 기술 기반 관리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잉게 국장은 특히 대중의 우려가 집중된 기본 금융 서비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개인 간 자금 이체나 일반적인 국내 송금 거래는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 지정 전자시스템 전자상거래(PMSE) 사업자를 통해 이미 세금이 납부된 거래의 경우, SPP-TDLN을 통해 중복 징수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이중과세 우려도 원천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직접 신고·납부할 필요 없이 결제 단계에서 자동 정산되므로 행정적 편의성이 향상된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테스트베드(샌드박스) 검증을 마쳤으며, 지난 9월 25일 자로 시스템 운영에 참여할 6개 징수 대행 기관(발급사)을 1차 지정했다. 지정된 기관은 국영은행인 ▲BRI ▲Bank Mandiri ▲BNI ▲BTN을 비롯해 ▲BSI(샤리아은행), 핀테크 플랫폼인 ▲LinkAja(Fintek Karya Nusantara) 등이다. 국세청은 여타 금융기관의 안정화 단계가 완료되는 대로 참여 업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국세청 청사 Gedung Direktorat Jenderal Pajak (DJP) Kementerian Keuangan. (Foto: Dok. Kemenkeu RI)

한편, 대중적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QRIS 결제에 대한 과세 우려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규정상 QRIS는 지급결제시스템 용역에 해당하므로, 소비자가 결제 수단 이용 자체로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과세 대상은 QRIS망을 운영하며 결제 수수료 수익을 얻는 은행, 핀테크 등 지급결제시스템 서비스 제공업체(PJSP)에 한정되며, 일반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물품 및 용역 대금만 결제하면 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coway



WATER PURIFIER

SLIM STAND
CHP-5730R

12 L
Ambient 5.5 L
Cold 3.5 L
Hot 3.0 L

Cold 0.6A
Hot 500w

26 x 44.8 x 117.0 cm

Pebble Grey
Porcelain White

Paket 7 Tahun* 350,000/bulan
Paket 6 Tahun* 390,000/bulan
Paket 5 Tahun* 430,000/bulan
Paket 3 Tahun* 550,000/bulan

*Termasuk Perawatan dan Penggantian Filter

coway

WATER SOFTENER

YONSU | 연수
BB14-AID



Resin Penukar Kation
Asam Kuat Tipe NA+

Kapasitas Resin
1.5 L

28.5 x 19 x 50 cm

Termasuk
Filtered
Shower Head

Paket 7 Tahun* 260,000/bulan
Paket 6 Tahun* 280,000/bulan
Paket 5 Tahun* 310,000/bulan
Paket 3 Tahun* 370,000/bulan

*Termasuk Perawatan dan Penggantian Filter

coway

* 한국어 문의 0811-9294-114 (WhatsApp. KakaoTalk only)
* 인도네시아 문의 02-4586-9199 / 0813-1035-057
Kontak Bahasa Korea: 0811-9294-114 (Hanya WhatsApp dan KakaoTalk)
Kontak Bahasa Indonesia: 02-4586-9199 / 0813-1035-057

System Ever Indonesia | 영림원소프트랩

더 튼튼한 기반,
더욱 크게 성장한
비즈니스

- 회계 (Accounting)
- 생산 (Manufacturing)
- 재고 (Inventory)
- 급여 (Payroll)
- 보세구역 (Bonded Zone) 지원까지

비즈니스 규모에 따른 **맞춤형**
시스템 구축을 제공합니다.

지금 상담하세요! →

+62 811-1997-1017
www.systemever.co.id

가야성 중화요리
Ga Ya Sung
중화 요리 전문점
Since 1997

가야성에서 준비한

알곤이 짬뽕

톡톡 터지는 알과 부드러운 곤이
깊고 얼큰한 해물 짬뽕



예약 문의
081295094658

Ga Ya Sung | Grand Wijaya Center Blok F No. 48 | Jakarta Selatan

인도네시아 정부, 2026/2027 연말연시 대중교통 티켓 최대 30% 할인… 경기 부양책 본격 가동

- 철도·해운 기본 운임 30% 감면, 항공권 부가세 100% 정부 지원
- 총 8,834억 루피아 예산 투입… 국민 이동 부담 완화 및 내수 활성화 기대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가오는 2026년 성탄절 및 2027년 신년(Nataru) 연휴를 맞아 대중교통 운임을 최대 30% 할인 지원하는 종합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항공, 철도, 해운, 연안 여객선(페리) 등 국가 전반의 교통 인프라를 아우르는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말연시 귀성객 및 관광객의 여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인구 유동성을 촉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장관은 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정부소통청(Bakom) 발표를 인용해 "2026년 하반기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이번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총 8,834억 루피아(약 760억 원)의 국가 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 항공 운송 인센티브에 약 7,220억 루피아, 철도·해운 및 여객선 운임 지원에 약 1,614억 루피아가 배정됐다.

◆ 철도 30% 할인… 추가 좌석 구매 시 50% 감면 혜택도

가장 큰 수요가 예상되는 일반 철도의 경우, 일반 상업용 일반실(이코노미 클래스) 승차권에 대해 30% 할인이 적용된다. 총 954억 루피아의 예산을 투입해 약 100만 명의 승객을 지원할 계획이다. 탑승 기간은 2026년 12월 22일부터 2027년 1월 4일까지이며, 할인 승차권 예매는 오는 11월 7일부터 본격 개시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철도공사(PT KAI)는 쾌적한 이동을 위해 인접 빈 좌석을 구매할 수 있는 '추가 좌석(Extra Seat)'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 특정 노선에 한해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국내선 항공권 세제 지원… 약 11~12% 인하 효과

국내선 항공편은 세제 혜택 형태로 지원된다. 정부는 정기 상업 항공 운송 일반실 승객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제(PPN DTP 100%)하고, 공항여객서비스료(PJP2U) 및 착륙·정박료 등 공항 시설 이용 요금을 50% 감면한다. 이를 통해 국내선 항공권 가격은 실질적으로 약 11~12% 인하될 것으로 추산된다.

항공권 지원 예산은 약 7,220억 루피아로 약 375만 명의 승객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탑승 기간은 2026년 12월 22일부터 2027년 1월 10일까지이며, 예매는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1월 10일까지 진행된다.

◆ 도서 지역 잇는 해운 여객선 30% 할인·페리 항만세 100% 면제

도서 간 이동을 담당하는 해상 교통 부문도 대폭 지원된다. 국영해운공사(PT Pelni) 여객선은 기본 운임의 30%가 감면되며, 약 383억 루피아의 예산으로 41만 4,600여 명의 승객을 지원한다. 탑승 기간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7년 1월 10일까지로, 예매는 10월 19일부터 가능하다.



수도권 철도 이용객 (Foto: Humas KAI Daop 6 Yogyakarta)

또한, 연안 여객선(페리) 이용객 약 142만 명을 대상으로 항만 이용료 100%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2월 22일부터 2027년 1월 10일까지이며, 예매 및 서비스 이용은 11월 7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이는 '항만 이용료'에 국한된 면제 조치로 전체 승선권이 무료화되는 것은 아니다.

◆ 교통수단별 상이한 조건… "사전 확인 및 조기 예매 권장"

정부 관계자는 "각 프로그램별로 적용 대상 좌석 등급, 출발 일정, 배정 수량 등 세부 조건이 상이하므로 모든 티켓에 일괄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할당량이 소진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예매하고, 교통공사 및 각 항공사의 공식 지침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책은 연말 가계의 지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전국 주요 관광지와 귀성 지역의 숙박·상업 및 소상공인(UMKM) 생태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PRESENTED BY btn
그때 그 노래, 다시 만나는 우리들의 청춘!
7080
추억의 밤
JAKARTA LIVE CONCERT
잊고 지냈던 친구, 첫사랑, 그리고 그 시절의 노래들...
당신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합니다!
TICKETS ARE AVAILABLE AT
LOKÉT
건아들
젊은 미소
남궁옥분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홍서범
MC & OXEN 80
현 숙
정말로 / 요즘 여자 요즘 남자
권성희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조갑경
바보 같은 미소
7 NOV SAT 19:00
OPEN GATE 18.00
VENUE:
THE BALLROOM AT
PLAZA SENAYAN (LT. P5)
OXEN'80
WITH 3 PROFESSIONAL BACKING VOCALIST
SUPPORTING THE NEXT GENERATION
RP 200,000,000
SCHOLARSHIP SUPPORT FOR KOREAN STUDENTS
LUCKY DRAW
RP 100,000,000 IN TOTAL PRIZES
PROMOTER BY APGM
OFFICIAL ENERGY DRINK HONGSAM BALL
EVENT ORGANIZER SINERGI SUARA INDONESIA

자카르타 안쫄 유원지, '오후 무료입장 프로모션' 11월 12일까지 연장

- 새벽 및 오후 특정 시간대 개인 입장료 무료 혜택 제공
- 공식 웹사이트 사전 예약 필수… 차량 입장료 및 놀이시설은 별도



Dok: Instagram @ancoltamanimpian

[자카르타] 자카르타의 대표 해변 휴양지인 '타만 임피안 자야 안쫄(Taman Impian Jaya Ancol, 이하 안쫄)'이 대중의 성원에 힘입어 구역 무료입장 프로모션 기간을 연장한다.

안쫄 관리 당국은 당초 10월 말까지 예정되었던 무료입장 혜택을 오는 2026년 11월 1일(일)부터 11월 12일(목)까지 추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프로모션 기간을 놓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안쫄 공식 SNS에 따르면, 무료입장이 가능한 시간대는 두 차례로 나뉜다. 방문객은 이른 아침 시간대인 03:30~04:30 WIB(서부 인도네시아 표준시)의 '얼리 모닝(Early Morning)' 또는 일몰과 저녁 시간을 아우르는 16:00~23:00 WIB의 '선셋 쿨리네르(Sunset Kuliner)' 시간대 중 선택하여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문객들은 개인 입장료 부담 없이 해변 산책로를 이용하거나 일몰을 감상할 수 있으나, 이용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안쫄 구역의 '개인 입장권'에만 한정 적용되며, 차량 입장료는 별도로 부과된다. 또한, 두판(Dufan), 씨월드 안쫄(Sea World Ancol), 사무드라(Samudra), 아틀란티스(Atlantis), 자카르타 버드 랜드(Jakarta Bird Land) 등 주요 놀이 시설 이용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료로 운영된다. 다만, 해당 놀이시설의 경우 최대 75%까지 할인되는 알뜰 레크리에이션 패키지 티켓을 별도로 판매 중이다.

무료입장 티켓은 안쫄 공식 웹사이트(www.ancol.com/gratis)를 통해 사전 예약을 완료해야 발권받을 수 있다.

상세 이용 조건에 따르면, 전자 티켓(E-tiket)은 1인 1회 기준 선택한 날짜에만 유효하며 타 날짜로의 변경 및 환불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방문 최소 1일 전(D-1)에 온라인으로 티켓을 예약할 경우 식음료(F&B) 및 기념품 15% 할인 바우처 혜택이 추가로 제공되며, 당일 예약 건은 할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쫄 관계자는 "무료 티켓 발권은 한정 수량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는 만큼, 방문을 계획하는 시민들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살기좋은 정주여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유턴하세요.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가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역할

기업 맞춤형 투자 상담	인센티브 정보 제공
조세 정보 제공	부지선정 정보 제공
행정적 지원 제공	사업파트너 발굴 지원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정보부터 행정지원까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하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BJFEZ
Busan-Jinhae Free Economic Zone
대표번호 : 051) 979-5000

“러시아 고액 연봉 일자리” 속여 용병 차출… 인도네시아인 58명 인신매매 피해

- 印尼 경찰청, 인신매매 일당 13명 특정… 러시아 · 우크라이나 국적자도 연루
- 물류 · 경비직 미끼로 유인 후 강제 징집… 전직 군 · 경찰관도 포함

고액 연봉의 해외 취업을 미끼로 인도네시아 자국민을 유인해 러시아 용병으로 참전시키려 한 국제 인신매매 범죄 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도네시아 경찰청 범죄수사국(Bareskrim Polri)은 자카르타 수도권 경찰청 및 서자바 경찰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국민(WNI)을 러시아 용병으로 보내려 한 인신매매(TPPO) 사건 5건을 적발하고 총 13명의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58명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13명 중에는 러시아 국적자 2명과 우크라이나 국적자 1명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현지 모집책, 중개인, 출국 자금 조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피해자들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모집됐으며, 일반 민간인뿐 아니라 전직 군인(TNI)과 경찰(Polri)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누룰 아지자(Nurul Azizah) 인도네시아 경찰청 여성·아동보호 및 인신매매근절 범죄국장(경찰준장)은 이날 자카르타 범죄수사국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청 범죄수사국과 각 지방 경찰청에 접수된 5건의 신고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조직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범죄 조직은 경제적 취약 계층을 표적으로 삼아 소셜미디어(SNS)와 구인 플랫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접근했다. 이들은 물류, 국경 경비, 방위 시설 건설 등의 직무라며 러시아 현지 취업을 제안했다. 월 3,000달러(약 5,000만 루피아)에 달하는 급여와 함께 계약 체결 시 최대 3만 5,000달러(약 6억 2,000만 루피아)의 일시금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함정이었다. 취업 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 러시아에 입국한 피해자들은 당초 약속된 업무 대신 용병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당했다. 피해자들은 형식적인 건강검진 직후 한 달간의 군사훈련을 거쳐, 어떠한 법적 보호나 안전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전선으로 내몰렸다. 피해자들의 항공권과 비자 발급 비용은 전액 러시아 현지 에이전트가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룰 준장은 “과도한 고액 급여를 내세우며 해외 송출을 제안하는 것은 전형적인 인신매매 수법”이라며 “경제적 절박함을 악용한 유사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이번 사건 배후에 국내외를 연결하는 대규모 국제 조직이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방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공급망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찰청 범죄수사국(Bareskrim Polri) 여성·아동 보호 및 인신매매 단속(PPA-PPO)국장 누룰 아지지아(Nurul Azizah) 경찰준장(가운데)이 경찰청 범죄수사국 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11/2026). (Foto: HO-Divisi Humas Polri)

현재 피의자들은 인신매매 근절에 관한 법률(2007년 제21호) 및 이주노동자 보호법(2017년 제18호)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관련 법에 따라 인신매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과 6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 이주노동자 송출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0년 및 150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니-중국 당국 공조, 아체 마약 제조실 급습… 필로폰 1.2톤 압수 및 18명 검거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법집행 당국이 긴밀한 공조 수사를 통해 대규모 다국적 마약 제조 및 유통 조직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 작전을 통해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약 1.2톤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압수됐으며, 양국에서 총 18명의 용의자가 체포됐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 10월 28일(수) 자카르타 경찰본부(Mabes Polri)에서 열린 수유디 아리오 세토 국가경찰청장과 중국 공안부 대표단 간의 양자 회담을 통해 공식 발표됐다.

당국에 따르면, 적발된 범죄 조직은 액체 상태의 메스암페타민을 인도네시아로 밀반입한 뒤 이를 결정성 필로폰으로 가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지난 10월 21일 아체주 피디에군 무띠아라 티무르구 고뭄봉 베우레우에 두(Gampong Beureueh Dua)에 위치한 비밀 마약 제조실을 급습해 마약 1.2톤을 압수하고, 중국 국적자 2명을 포함한 11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동시에 중국 당국 역시 본국에서 동일 조직과 연루된 용의자 7명을 체포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작전은 인도네시아 국가마약청(BNN), 국가경찰(Polri), 관세청과 중국 국가마약통제위원회(NNCC) 간의 유기적인 정보 교류 및 합동 집행의 결과물이다. 또한 말레이시아 마약통제 당국의 지원도 조직망을 추적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 참석한 란웨이훙 중국 NNCC 부비서장은 "미얀마, 태국, 라오스 일대에서 활동하며 인도네시아로 수차례 액체 마약을 밀반입해 온 조직에 대해 2025년부터 초기 정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수집된 수사 결과를 2026년 9월 인도네시아 BNN에 전달했고, 이후 양국 기관이 초국경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합동 작전에 돌입하면서 이번 적발로 이어졌다.

란 부비서장은 "이번 사건은 중국이 타국과 공조해 처리한 마약 밀수 사건 중 최대 규모로, 가장 많은 용의자를 체포하고 범죄의 연결 고리를 가장 완벽하게 차단한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그는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국의 전문적인 수사 역량과 단호한 의사결정이 빚어낸 실질적인 성과라며, 향후 동남아시아 지역의 마약 통제 역량을 높이는 데 있어 이번 협력이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와 중국 당국이 아체주에서 약 1.2톤의 필로폰을 압수했으며, 양국에서 총 18명의 용의자가 체포됐다. (28/10/2026).

수유디 아리오 세토 국가경찰청장 역시 관계 기관 및 중국 NNCC의 적극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국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일선 마약 조직뿐만 아니라 배후의 자금 제공자와 운영 지원 세력까지 끝까지 추적해 일망타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당국은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지속적인 법집행 협력을 이어감으로써, 초국경 마약 밀수 조직에 대한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마약 유통으로부터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니 관광시장 '양과 질' 동반 성장…외국인 관광객 1,200만 명 돌파·체류 지출도 큰 폭 증가

- 2026년 1~9월 누적 입국자 1,201만 명… 2020년 팬데믹 이후 최고 실적 달성
- 3분기 1인당 평균 지출 1,374달러 · 체류 기간 11.01박으로 확대… 지역 경제 파급효과 가시화
- 중국 · 호주발 입국 급증 속 국내 여행도 견조… 항공권 가격 상승으로 내국인 해외 출국은 둔화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팬데믹 이후 최대 호황 국면에 접어들었다. 입국자 수라는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과 체류 기간 등 질적 지표도 일제히 개선되면서 국가 관광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은 2일(현지시간) 공식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누적 1,201만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01%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20년 이후 9개월 누적 기준 최고 실적이다.

아텡 하르토노(Ateng Hartono) BPS 유통·서비스 통계 담당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6년 첫 9개월간 달성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은 인도네시아 관광 부문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구조적으로 긍정적인 성장 궤도에 안착했음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 9월 외국인 143만 명 입국… 중국인 관광객 전년比 35.6% '수직 상승'

세부 통계에 따르면 2026년 9월 한 달간 인도네시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143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2.31% 늘어났으나, 하계 성수기였던 지난 8월과 비교하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10.79% 감소했다. 전체 입국자 가운데 128만 2,308명은 주요 공항 및 항만 등 주요 관문을 통해 입국했으며, 14만 4,806명은 국경 관문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인접국인 말레이시아 관광객이 23만 9,222명(16.76%)으로 1위를 지켰다. 이어 호주가 17만 7,354명(12.43%)으로 2위를 기록했고, 중국(15만 3,574명, 10.76%), 싱가포르(13만 4,363명, 9.42%)가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주요 방인 국가 간의 증감추이다. 중국인 관광객은 항공 노선 확대 및 비자 정책 완화 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무려 35.59% 급증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견인했다. 싱가포르(12.69%)와 호주(8.46%) 역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전통적 최대 고객인 말레이시아발 입국객은 전년 동월 대비 12.19% 감소세를 나타냈다.

■ 체류 기간 늘고 씀씀이도 커져… 3분기 1인당 지출 '1,374달러' 기록

단순한 방문객 수 증가를 넘어 '고부가가치 관광'으로의 전환 흐름도 뚜렷하다. BPS 집계 결과, 2026년 3분기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미화 1,374.48달러(달러당 18,138루피아 적용 시 약 2,490만 루피아)에 달했다. 이는 직전 분기인 2분기(1,285달러)는 물론, 전년 동기인 2025년 3분기(1,297.31달러) 실적을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지출 항목별 구조를 살펴보면 '숙박비'가 497.12달러로 전체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식음료비'가 271.33달러로 두 번째로 컸으며, '쇼핑 및 기념품 구입'(148.93달러), '오락비'(115.63달러), '현지 투어 패키지'(79.37달러), '현지 교통비'(77.26달러) 순으로 집계됐다. 렌터카 및 건강·미용 비용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1인당 지출 규모가 고르게 확대됐다.

체류 기간 역시 장기화 추세를 보였다. 3분기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 체류 기간은 11.01박으로, 2분기(10.30박) 및 전년 동기(10.70박) 대비 연장됐다.

아텡 차관은 "체류 기간 연장과 지출 확대는 호텔업뿐만 아니라 F&B(식음료), 현지 운송, 오락 인프라, 나아가 영세·중소기업(MSME)에 이르기까지 지역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 낙수효과를 제공한다"며 "특히 지출 2위를 차지한 식음료 분야는 청년 창업 활성화와 현지 고용 창출에 중요한 기회의 창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수의 외국인 관광객이 인도네시아에서 관광을 위해 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Foto: Dok. KAI)

입국 목적은 '휴가'가 79.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개인 사유(12.69%), 비즈니스(8.31%)가 뒤를 이었다. 선호하는 숙박 형태로는 성급 호텔 투숙 비율이 60.95%로 과반을 넘었고, 비성급 상업 숙박 시설(30.66%), 친인척 및 지인 가구(6.61%) 순이었다.

■ 탄탄한 국내 관광 vs 위축된 해외 출국… '항공료 상승·연무 현상' 영향

인도네시아 내수 관광 시장(Wisnus) 역시 견고한 회복세를 증명했다. 9월 국내 관광객 여행 건수는 9,669만 건으로 전년 대비 2.47% 늘었으며, 1~9월 누적 여행 건수는 9억 3,884만 건을 돌파해 전년 동기 대비 4.10% 성장했다. 이는 외부 불확실성 속에서도 탄탄한 내수 기반이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반면, 인도네시아 국민의 해외 아웃바운드 여행(Wisnas)은 완연한 둔화세를 보였다. 9월 해외여행 건수는 60만 610건으로 전월 대비 6.69%,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69% 급감했다. 1~9월 누적 건수 역시 651만 건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4.60% 줄었다.

이와 관련해 BPS는 항공 물가 부담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아텡 차관은 "아체-말레이시아 노선을 비롯한 단거리 국제선 항공권 가격의 급등과 더불어 지난 9월 지역 내 발생한 연무(Haze) 현상 등이 국제선 운항 차질과 심리적 여행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프라 정비, 주요 발원국 대상 항공 공급 확대, 문화·자연 복합 관광 콘텐츠 개발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6년 연간 외국인 유치 목표치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자카르타 대형 문화·스포츠 행사, 지역 경제 견인…
칸예 웨스트 공연·러닝 페스티벌로 6,250억 루피아 효과 창출

미국 출신 세계적인 래퍼 칸예 웨스트(Ye)의 단독 콘서트와 대규모 스포츠 행사인 '자카르타 러닝 페스티벌(JRF)'이 연이어 성공을 거두며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모노 아눙(Pramono Anung) DKI 자카르타 주지사는 지난 10월 26일 서부 자카르타 타만 사리(Taman Sari)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지난 24일 겔로라 붕 카르노(GBK) 주경기장에서 개최된 칸예 웨스트의 내한 콘서트가 약 4,500억 루피아(약 3,900만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경제 지표는 수하리니 엘리아와티(Suharini Eliawati) 자카르타주 경제재정 차관보 및 연구팀의 정밀 분석을 바탕으로 산출됐다. 프라모노 주지사에 따르면 해당 콘서트의 순수 티켓 판매액만 3,280억 루피아에 달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동남아시아 및 호주 권역을 통틀어 유일하게 진행된 무대였던 만큼, 수많은 해외 관광객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며 숙박, 외식, 관광 등 연계 소비를 대거 촉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Ye의 공연 효과는 행사 전후로 광범위하게 나타났으며, 관람객 다수가 주말까지 수도권 호텔에 머물며 소비 활동을 이어갔다"며 "이러한 체류형 소비가 4,500억 루피아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열린 스포츠 축제 '자카르타 러닝 페스티벌(JRF) 2026' 역시 1,750억 루피아 규모의 경제 순환을 이끌어냈다. 해당 행사와 연계된 '레이스 엑스포'에는 49개 현지 소상공인·중소기업(MSME)과 국내외 130개 브랜드가 대거 참여해 내수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에 따라 칸예 웨스트 콘서트와 자카르타 러닝 페스티벌 두 행사를 합산한 경제적 효과는 최소 6,250억 루피아(한화 약 550억 원)에 이른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집계된 수치는 호텔 투숙률과 대형 쇼핑몰 매출 등 가시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산출한 보수적인 결과"라며, "대중의 비공식적인 연쇄 소비까지 감안하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경제적 유동성은 추산치를 웃돌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출신의 저명한 래퍼 카니예 웨스트가 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주경기장에서 'Ye Live in Jakarta' 콘서트 (Instagram.com/@rawvision.collective)

아울러 그는 앞서 성공적으로 치러진 팝스타 위켄드(The Weeknd)의 공연과 '페스타포라(Pestapora) 2026'을 언급하며, 대형 문화·스포츠 이벤트 유치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자카르타의 '글로벌 MICE 도시' 입지를 강화하는 핵심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환자분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의원"

미르 한의원
MI-REU CLINIC
신속한 효과 • 세심한 진료

■ 진료과목
– 목,허리통증및 디스크
– 어깨,무릎,팔,다리 관절및 근육통
– 소화기,호흡기,심혈관 질환
– 성장탕,총명탕(수험생)
– 허약체질,피로회복,면역강화
– 갱년기,자궁근종,갑상선,일체냉증
– 화병,우울증,공황장애

진료시간
월–금 9:30~6시
토요일 10:30~4시
점심 : 12시~1시
일요일,공휴일 휴무

085694537974
INDO-TCM
미르한의원
(Mireu-tcm)
TALK
Mireu-tcm

Grand Wijaya Centre Blok C 37 Lantai 1
Jl. Wijaya II, Kel. Pulo, Kec.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인도네시아 정부, 2026-2027 연말연시 국내선 항공권 부가세 100% 전액 지원

재무부 장관령 제77/2026호 공포… 일반석 대상, 경제 활성화 및 국민 구매력 보전 목적
구매일 · 탑승일 동시 충족해야… 유류할증료 포함되나 부가 서비스는 제외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6년 성탄절 및 2027년 신년(Nataru) 연휴 기간 동안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귀성객과 여행객을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연말연시 연휴 기간 동안 국내 정기 상업 항공 운송 서비스(일반석)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PPN)를 전액 면제하는 '정부부담 부가가치세(PPN DTP)'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휴 기간 내수 경제 활동을 진작하고 고물가 속 국민의 구매력을 보전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

관련 세제 지원 근거를 담은 '재무부 장관령(PMK) 제77/2026호'는 지난 10월 12일 수아하시얼 나자라(Suahasil Nazara) 재무부 장관이 서명한 뒤 10월 20일 공식 공포됐다. 해당 법령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2027 회계연도 기준 국내선 정기 상업 항공편 일반석 공급에 대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정부가 100% 전액 부담한다.

다만,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항공권 구매일과 실제 탑승일 등 세부 적용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Pesawat Garuda Indonesia (Foto: Istimewa/ Garuda Indonesia Airlines)

구매 및 탑승 기간 요건 '동시 충족' 필수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전액 면제 혜택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1월 10일 사이에 구매한 항공권에 적용된다. 아울러 실제 탑승 기간은 2026년 12월 22일부터 2027년 1월 10일까지로 제한된다.

소비자는 이 두 가지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원 대상 기간 내인 2026년 10월 25일에 항공권을 결제했더라도 탑승일이 12월 21일인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10월 22일에 발권하고 12월 22일에 탑승하는 일정이라면 정상적으로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다.

기본 운임과 유류할증료만 면제… 부가 서비스는 과세 유지

항공권 결제 금액 전액에 대해 일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정부의 세제 지원 대상은 '기본 항공 운임(base fare)'과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두 가지 항목으로 한정된다.

초과 수하물 요금, 사전 좌석 지정 요금 등 부가 서비스(Ancillary Service) 이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기존 규정대로 부과된다.

장관령 부속서에 제시된 자카르타-수라바야 노선 예시에 따르면, 기본 운임(790,000루피아)과 유류할증료(121,600루피아) 합산액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100,276루피아는 전액 감면된다. 그러나 탑승객이 별도로 결제한 추가 수하물이나 유료 좌석 서비스에 대한 세금은 결제 내역에 그대로 청구된다.

항공사 대상 행정 의무도 명시… 2027년 3월 말까지 거래 명세 제출해야

이번 조치에 따라 과세사업자(PKP) 지위를 가진 항공사들의 행정적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항공사는 법적 규정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Faktur Pajak)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SPT Masa PPN)를 성실히 보고해야 한다.

또한 항공사는 국세청(DJP) 포털을 통해 예약 번호, 노선, 발권일, 탑승일, 과세표준, 정부 부담 세액 등이 포함된 정부부담 부가가치세 거래 명세서를 오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보고 기한을 넘기거나 행정 요건을 미이행할 경우 세제 혜택이 취소되며, 미납 세액은 현행 세법에 따라 추징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조치가 연말연시 대규모 이동을 앞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도, "선택하는 부가 서비스 내역에 따라 개인이 체감하는 최종 할인 폭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매 시 상세 내역을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CONTOH PENGHITUNGAN PAJAK PERTAMBAHAN NILAI YANG DITANGGUNG PEMERINTAH DAN TIDAK DITANGGUNG PEMERINTAH ATAS PENYERAHAN JASA ANGKUTAN UDARA NIAGA BERJADWAL DALAM NEGERI KELAS EKONOMI

PT CFE merupakan Badan Usaha Angkutan Udara dan melakukan penyerahan jasa Angkutan Udara Niaga Berjadwal Dalam Negeri Kelas Ekonomi dari Jakarta ke Surabaya kepada Ny. AP.
Ny. AP membeli Tiket pada tanggal 24 Oktober 2026 untuk penerbangan tanggal 9 Januari 2027 seharga Rp1.261.756,00 (satu juta dua ratus enam puluh satu ribu tujuh ratus lima puluh enam rupiah).

Adapun komponen biaya Tiket adalah:

1.	tarif dasar (*base fare*)	:	Rp	790.000,00
2.	*fuel surcharge*	:	Rp	121.600,00
3.	IWJR *fee*	:	Rp	5.000,00
4.	*passenger service charge*	:	Rp	119.880,00
5.	*Value Added Tax* (VAT)	:	Rp	100.276,00
6.	*extra baggage (include VAT)*	:	Rp	75.000,00
7.	*seat selection (include VAT)*	:	Rp	50.000,00
8.	total	:	Rp	1.261.756,00

Berdasarkan data tersebut, PPN terutang adalah:

- PPN terutang atas tarif dasar (*base fare*) dan *fuel surcharge* sebesar 12% x 11/12 x (Rp790.000,00 + Rp121.600,00) = Rp100.276,00
- PPN terutang atas *extra baggage* sebesar 11/111 x Rp75.000,00 = Rp7.432,00
- PPN terutang atas *seat selection* sebesar 11/111 x Rp50.000,00 = Rp4.955,00

Total PPN terutang adalah sebesar Rp100.276,00 + Rp7.432,00 + Rp4.955,00 = Rp112.663,00.

Dari jumlah tersebut, PPN terutang yang ditanggung pemerintah adalah sebesar Rp100.276,00 (seratus ribu dua ratus tujuh puluh enam rupiah). PPN terutang atas *extra baggage* sebesar Rp7.432,00 (tujuh ribu empat ratus tiga puluh dua rupiah) dan PPN terutang atas *seat selection* sebesar Rp4.955,00 (empat ribu sembilan ratus lima puluh lima rupiah) merupakan PPN terutang yang dipungut kepada penerima jasa dan tidak ditanggung pemerintah.

2027 회계연도 정부 부담 크리스마스 및 신년 연휴 기간 일반석 국내선 정기 상업 항공 운송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부 장관령 2026년 제77호. (자료: 재무부 법률정보데이터네트워크(JDIH Kemenkeu) (Foto: Dok. JDIH Kemenkeu)

오케이 치과 병원

ROYCE
ROYCE DENTAL GROUP

OK Dental Clinic



1 한국-인도네시아 협진 시스템
Korea-Indonesia Collaboration System

2 임플란트-최소절개시술
Implant - Minimally Invasive Procedure



3 찌까랑 지점 오픈

OK치과가 특별한 이유
- ROYCE 본원 협진 시스템
-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 개인 맞춤 치료 플랜
- 사후관리 및 한국 연계 진료 지원

로이스치과
공식 모델 정준호

Monday - Friday = 10:00AM - 19:00PM
Saturday = 09:00AM - 17:00PM

OK Dental Clinic

자카르타 주소 (Jakarta)
Blok C, Jl. Wijaya II No.38, Rt.6/Rw.1
Pulo, South Jakarta 12160

찌까랑 주소 (Cikarang)
K-Eduplex Jl. Ganesha 2, Lot B1,
Deltamas, Pasirranji, Cikarang Pusat, Bekasi

문의 : Tel : 021-720-1779 HP : 0821-2255-7980 Email : okdental02@gmail.com

인도네시아 생리대 부가가치세 논란… 국세청 “원칙적 과세 대상이나 실효 세율은 11%”

인도네시아에서 여성 필수품인 생리대(Pembalut)에 부가가치세(PPN)를 부과하는 것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과세 당국이 공식 해명에 나섰다. 당국은 생리대가 현행법상 면세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실효 세율은 명목 세율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여성의 생물학적 필수품인 생리대가 여전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급격히 확산됐다. 이번 논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스레드(Threads)'의 한 사용자(@moocuddle)가 “여성에게 생물학적 필수품인 생리대가 면세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이 슬프다”며 과세 부당성을 제기한 게시물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촉발됐다.

논란이 커지자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국세청(DJP)은 생리대가 원칙적으로 과세재화(BKP)에 해당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인게 디아나 리스마와티(Inge Diana Rismawati) 국세청 홍보·서비스·대외협력국장은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일반적인 소비재는 법령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는 특정 물품을 제외하고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며,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생리대 역시 관련 세법 규정을 충족하는 한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율 산정 방식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도 주력했다. 인게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비사치재의 경우 명목상 1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 표준은 판매가의 11/12에 해당하는 별도 가액으로 책정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실효 부가가치세율은 세전 판매가의 11% 수준이 된다. 예를 들어 세전 가격이 30,000 루피아인 생리대의 경우, 11%인 3,300 루피아의 세금이 붙어 최종 소비자가격은 33,300 루피아로 책정되는 구조다.

아울러 국세청은 생리대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이를 사치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 '2022년 정부 시행령(PP) 제49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쌀, 옥수수, 육류, 우유, 채소 등 특정 기본 식자재 및 생필품에만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있으며, 생리 위생용품은 해당 면세 그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인도네시아 생리대 Pembalut (Foto: AI/ Tya Haninpost)

인게 국장은 “생리대 과세는 여성이나 생리 현상을 겨냥한 특별 과세가 아니라, 일반적인 재화 소비에 적용되는 조세 제도의 일부”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국세청은 향후 제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인게 국장은 정부가 여성의 건강과 위생을 위한 생리 용품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 제품에 대한 과세 개편 제안에 대해 정부는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제기되는 모든 제안은 현행 세법과의 정합성, 사회적 영향 및 국가 재정적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Api
Do it now!
PT. ANEKA PANEL INDONESIA
MANUFACTURE OF SANDWICH PANEL
대형 지붕 공사의 혁신 • PT. API 만의
“Scissors Lift”
주요 취급 공사
01 대형 지붕 및 벽체공사
02 노후 된 지붕 교체 공사
03 누수로 인한 보수 공사
04 각종 철골 제작 시공
05 창호 및 방충망 제작 시공
06 Mining 공사의 대단위 숙소, 사무실, 경비실, 창고 등 설계 시공
Our Mission
01 Quality Up
02 Speed Up
03 Service Up
Contact Choe, B.W (P/D) E-mail cbwapi@gmail.com ☎ WA 0811 956 227
G.M Nuris Widodo E-mail anekapanel@gmail.com ☎ WA 0821-2535-4900
Head Office Menara MTH 6th.Floor Suite 6-06 Jl. Letjen MT. Haryono Kav 23 Jakarta 12820
Factory Jalan Desa Anggadita, Kec. Klari, Karawang Jawa Barat
Website www.anekapanel.co.id


충남 우수상품
시식행사
충남의 맛을 만나보세요
해멸첨
ANCHOVY
NICE CHIPS
프로틴
쿠키
키미쫑
기간: 11월 16일~ 11월 30일.
장소: 무궁화 본점 1층.
Chungnam
kotra
MU GUNG HWA

invitation

(사)한국서예협회 인도네시아지회
The Indonesia Branch of Korea Calligraphy Association

제18회 자필묵연 정기전
The 18th Japilmukyeon Exhibition

내 삶의 한 단어
One Word of My Life

▪ 초대합니다 ▪

제18회 自筆墨緣 정기전에 삼가 모십니다.

적도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먹을 가는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한국서예협회 인도네시아지회 자필묵연이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어느덧
열여덟 번째 정기전을 펼칩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내 삶의 한 단어〉 입니다. 회원 저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가슴 깊이 품어 온 한 단어를 골라 화선지 위에 새겼습니다. 낯선 땅에서도 스스로를
갈고닦으며 문화의 뿌리를 지켜 온 한국인의 열정이 한 획 한 획에 스며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사)한국서예협회 송현수 이사장을 비롯하여 오치정 서울시지회장,
최명식 경기지회장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시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십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걸음하시어 은은한 묵향 속에서 따뜻한 격려와
축하를 나누어 주신다면 더없는 기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riod 2026. 11. 26 Thu ~ 30 Mon
Open 10am · Closing 6pm

Venue WISMA KORINDO 2F Special Exhibition Hall

Opening Ceremony 2026. 11. 26 Thu 3:00 pm

主催 _ 社團法人 韓國書藝協會 印尼支會
主管 _ 自筆墨緣

出品作家

이정 권장문	일우 김도영	유경 김동석	초아당 김수연	하정 김영욱	운초 김영주
무불 김유만	연청 김인숙	설초 김채선	초여 김혜영	동음 김혜정	송운 김희선
시화 김희진	유정 노정희	추산 박도연	가산 박성대	정산 박주현	혜산 송판원
보덕 신동필	우빈 양승식	연포 이규환	여산 이성득	묵정 장 임	이도 정재익
유석 정철호	도념 제경종	풍곡 조용래	익조 최태립	송헌 한규성	

〈지도선생〉 인재 손인식 〈찬조출품〉 문정 송현수 · 혜천 오치정 · 취평 최명식

닮은 듯 다른 한국과 인니의 전통 탈… 자카르타서 '두 얼굴, 하나의 영혼' 전시 개막

- 수교 50주년 넘어선 양국의 깊은 우정, 전통 문화유산으로 재조명
- 한국의 '미얄할미 탈'과 발리의 '투아 탈' 등 유사성 지닌 양국 탈 10쌍 비교 전시
- 파들리 존 인니 문화부 장관 "보편적 인류애 확인하는 문화적 대화의 장 될 것"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오랜 우정과 문화적 공감대를 전통 예술로 풀어낸 특별한 전시회가 인도네시아 심장부에서 막을 올렸다.

인도네시아 문화부는 지난 10월 26일(월) 자카르타 중앙부 국립박물관에서 '두 얼굴, 하나의 영혼(Dua Wajah, Satu Jiwa)'을 주제로 한 한-인도네시아 전통 탈 전시회를 성황리에 개막했다고 밝혔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KCCI)과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에이전시(IHA)의 긴밀한 협력으로 성사된 이번 전시회는 1973년 수교 이래 반세기 넘게 평화와 번영을 향해 함께 걸어온 양국의 우호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전시는 형식적인 외교 관계를 넘어 양국의 예술가와 연구원, 일반 대중이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교류하는 장을 제공한다.

전시의 핵심은 성격과 의미, 문화적 가치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매칭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전통 탈 10쌍이다. 나란히 배치된 양국의 소장품들은 관람객들에게 예술적 형태를 비교하고 그 이면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선사한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의 '미얄할미 탈'과 발리의 '투아(Tua) 탈'이다. 서로 다른 사회에서 탄생한 두 탈이지만, 모두 세월의 흐름에 따른 인간의 삶과 경험, 지혜, 그리고 노년의 변화를 대변하고 있어 관람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한국 전통 탈 컬렉션이 함께 전시되어 유머와 사회적 비판, 영적 가치, 대중의 염원을 담아낸 매개체로서의 탈의 역할을 조명한다.

개막식에 참석한 파들리 존(Fadli Zon) 인도네시아 문화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탈은 단순한 공연 도구가 아니라 세대를 거쳐 사회의 정체성과 삶의 철학을 기록해 온 문화유산"이라고 정의하며, "이번 전시회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두 나라가 보편적 가치를 지닌 예술적 표현을 통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번 협력이 양국 간 지속 가능한 문화 파트너십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영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순구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역시 양국 전통의 깊은 유대감을 강조했다. 윤 대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탈은 외형적 전통은 다르지만, 그 이면에는 가족의 행복과 사회적 안녕을 기원하는 공통된 소망이 담겨 있다"며 "서로 다른 얼굴 뒤에 숨겨진 보편적 감정을 발견하는 것이 이번 전시가 주는 소중한 메시지"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전시에는 전통 예술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관람객들은 오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박물관 내 '이머시브A(ImersifA)' 공간에서 시각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방식으로 탈에 얽힌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일반 입장료 별도).

양국의 공통된 인간성과 문화를 비추는 거울이 될 '두 얼굴, 하나의 영혼' 전시는 자카르타 국립박물관 C동 그라운드 구역에서 진행되며, 2026년 10월 2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자카르타 중앙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국-인도네시아 협력 전통탈 전시회 '두 개의 얼굴, 하나의 영혼' 개막식에 참석한 파들리 존(Fadli Zon) 문화부 장관.(Foto: Dokumentasi/Kementerian Kebudayaan)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자카르타 중앙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국-인도네시아 협력 전통탈 전시회 '두 개의 얼굴, 하나의 영혼' 개막식에 참석한 파들리 존(Fadli Zon) 문화부 장관과 윤순구 주인니대사 (Foto: Dokumentasi/Kementerian Kebudayaan)



재외국민 한인동포-외국인을 위한 한국 건강검진 프로그램

검진예약 원스톱 플렛폼 '스캔포스트'

ScanPost 스캔포스트
Korea Medi Check Solutions & Services

www.scanpost.kr

- 한국건강관리협회 공식 글로벌 에이전시
- AI기반 최첨단 의료 인프라와 최다 의료진
- 여행지 전국 주요도시 17개 지부에서 검진
- 외국인 전용 검진센터(인천.서울.원주.부산.제주)
- 내/외국인을 위한 동일 가격 패키지 제공
- 주요도시 국내 관광 여행 최고 패키지 완비

코리아메디패스 (Korea Medipass) | 한국건강관리협회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 SOFTZION | HanInPost 한인포스트 | JACY CLUB

@scanpost

koreascanpost@gmail.com / kakao ID : scanpost

www.scanpost.kr











